

## 제주도 돛제와 퀘네깃당 본풀이 연구

김헌선\*

< 차례 >

- I. 논의의 단서
- II. 돛제의 의례적 특징
- III. <퀘네깃당본풀이>의 영웅서사시적 면모와 시대적 성격
- IV. 신화와 의례의 보편적 의의 : 내적 관계와 외적 확대
- V. 마무리 : 논의의 요약과 미해결의 과제

### 국문요약

이 논문은 제주도에 전승되는 퀘네깃당본풀이의 존재 의의와 특징을 규명한 것이다. 이 본풀이는 돛제라고 하는 돼지고기를 바치는 의례에서 구연되는데 돼지고기를 바치는 의례는 제주도에서만 행하는 독특한 음식의례이다. 돛제에서 연행되는 의례를 중점적으로 규명하면서 이 의례의 특징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례의 실상을 보고하였다.

여기에서 구연되는 본풀이가 영웅서사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영웅서사시의 내용적 특징이 무엇인지 말하고자 했다. 영웅서사시의 핵심은 일곱째 아들이 수난을 이겨내고 다른 곳에 가서 영웅적 위업을 달성하고 돌아와서 신으로 좌정하는 내용이 요점인 점을 밝히고자 했다. 본풀이에

\* 경기대학교 한국동양어문학부 국문학전공 교수

서 영웅의 일생에 의한 특징이 있음을 말했다. 동시에 요소들의 상충되는 면모에서 시대적인 흔적을 다양하게 담고 있는 점도 반영하였다.

신화와 의례의 핵심적 이론 가운데 하나인 의례와 신화의 상관성을 재론했다. 신화의 구술적 상관물이 곧 의례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를 달리 규명하고자 했다. 신화는 집약적인 것이고, 의례는 해체적인 것이라고 하는 점을 다루고자 했다. 집약과 해체의 상관성 속에서 본풀이가 행해지는 점을 말하면서 이를 본풀이와 돛제의 관련성을 새롭게 규명했다.

세계서사시의 특별한 사례로 본풀이가 긴요하고, 그 가운데서도 당신본풀이와 같은 영웅서사시가 구전되는 사실을 중요하게 내세워서 평가할만 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각도에서 이 본풀이는 세계에 내세울 만한 중요한 가치가 있음이 확인된다.

주제어 : 제주도 김녕리, 돛제, 궤넉깃당본풀이, 신화와 의례의 상관성, 영웅서사시

## I. 논의의 단서

제주도가 본풀이의 세계적 가치를 지닌 고장이자 나라임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제주도 본풀이 가운데 비교적 연구가 덜 된 쪽이 당신본풀이와 조상신본풀이임이다.<sup>1)</sup> 자료의 편향된 면모와 폐쇄적 성격 때문에 연구자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서 아마도 당신본풀이와 조상신본풀이의 연구가 누적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제주도의 본풀이가 지니는 세계적 가치를 해명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현지조

1) 선행 연구 업적이 많이 있지만 주로 자료작업의 성과와 연구 논제가 있어서 도움이 되지만 최근에 이루어진 성과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강정식,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김현선·현용준·강정식, <제주도조상신본풀이연구>, 보고서, 2006.

사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당신본풀이와 조상신 본풀이는 내재적 동질성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본주와 심방 사이의 관련이 구체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본풀이 연구가 온전하게 조명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이 글에서 해명하고자 하는 것은 제주도 북제주군 동쪽에 전승되는 돛제의 본풀이이다. 본풀이의 실체가 다양하고 돛제의 면모가 각양각색이어서 일관된 논의를 저해하는 요인이 있으나 이제 돛제와 당신본풀이의 상관성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하고 이에 관한 연구를 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일단 제주도의 현지에서 조사된 세 가지 본풀이 사례를 들어서 이를 연구하고자 한다. 현지조사에 치중하면 민속학적 실증주의에 입각한 자료 조사보고서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에 대한 현지조사의 개황을 간략하게 말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논증하는 일을 해서 제주도의 돛제와 본풀이가 얼마나 세계적 가치가 있는지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연구하기로 한다.

돛제와 본풀이가 어떻게 관련되는지 논의의 착안점을 말할 필요가 있다. 이 돛제가 관찰되는 사례는 공개적인 것이 아니므로 이 특수한 국면에 대해서 언급하기로 한다. 돛제가 여러 마을에서 다양하게 진행되므로 전반적 개황을 말하고 돛제와 본풀이의 상관성에 대해서 특수한 사정을 말하기로 한다.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제주도에서 관찰된 세 가지 사례는 매우 유용한 논거를 제공하는 현지의 조사사례가 될 것이다. 연구의 보편타당한 근거를 말하기 위해서 연구의 온전한 자료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규명하기로 한다. 돛제와 본풀이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다면적인 관계이다. 본풀이는 부분이고 돛제는 전체이고 서로 포함관계에 있지만 실제적인 운용을 보면 그것만이 아니다. 세 가지의 현지조사사례는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는 준거가 될 수 있다.

논의의 초점은 본풀이에 있다. 이 본풀이의 현지전승에 입각한 유력한 전승본을 초점으로 해서 이에 관련한 본풀이의 내용과 특성을 아는 일이 필요하다. 현재 돛제와 관련되는 당신본풀이의 전승은 온전하다고 하기 어렵다. 그것은 전승의 근본 문제인데 전승의 양대축 가운데 수용자들이 판습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자 역시 수용자와 관련해서 온전한 전승과 구연을 하지 않는 것이 예사이다. 그러므로 전승에 있어서 온전한 판본을 정리하고 얻어듣는 것이 쉬운 실정은 아니다. 따라서 온전한 전승을 감안한 연구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와 추론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케네깃당본풀이>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시대적으로 어떠한 시기에 생산된 것인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돛제와 본풀이에 관련한 논의가 어떠한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성찰이 필요하다. 그것은 두 가지 각도에서 마련될 수 있는데 하나는 돛제와 본풀이의 함수관계를 자체적으로 풀어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김녕리의 돛제와 당신본풀이는 이러한 추론을 전개하는데 자체의 요소에서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논의를 본풀이와 돛제라는 차원에서보다는 신화와 의례의 관점에서 해명하는 일이 필요하다. 돛제와 본풀이가 의례와 신화의 각도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생동하는 가치를 지니는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주도의 특수한 사례가 특수한 국면에 편중되지 않고 보편적 가치를 가지는지 이러한 각도에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나아가서 여기에서 다루지 않는 당신본풀이와 돛제의 관련성에 관한 제주도 전역의 본풀이와 돛제에 관련한 논의를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연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소용되는 것은 복제주군

일대에 널리 전승되는 돛제와 본풀이에 관련된 현지조사와 연구가 전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를 온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가설적 방편으로 필요한 본풀이와 돛제의 상관성에 입각한 추론을 필요로 한다. 제주도에 전승되는 사례를 일반화하면서 돛제와 본풀이에 대한 논의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추론을 전개하기로 한다.

돼지고기를 신에게 바치고 이 신이 왜 이 돼지고기를 받게 되었고 사람들이 왜 이 신을 음식으로 받드는가 하는 문제는 단순한 것은 아니다. 신이 영험한 힘을 발휘하던 세대의 산물인 점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제주도의 한 마을에서 전승하는 본풀이와 의례가 회한한 사례인가 알아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결국 돛제와 본풀이의 의의가 얼마나 시대적인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 논의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하면서 착안 사항에 입각한 구체적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돼지고기와 본풀이가 무슨 관계인가 하는 점을 알아보기로 하며 이에 대한 논의를 착안점으로 하고자 한다.

제주도 구좌읍 김녕리는 1,000여호의 대촌이라고 자부하는 곳이다. 이 마을에 신앙의 근간은 역시 심방에 의해서 주도되는 무속이다. 그런데 이 마을에도 김녕교회가 들어서 있고 외지의 신앙 본질 가운데 하나인 서울보살의 집이 있기도 하다. 김녕리는 마을이 아주 커서 본향당을 비롯한 당도 여러 군데이고, 단골들의 이해관계도 단순하지 않다. 김녕리의 당은 대체로 본향당인 큰당, 궤넛깃당, 성세깃당, 느므릿당, 서당, 해신당 등이 있다.<sup>2)</sup> 당이 여럿이고 본향당을 매는 심방이 따로 있고, 좀너굿을 하는 심방이 따로 있다. 이 현상은 김녕리 자체가 종교적으로

2)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622-623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된다. 이 고장에 돛제가 있으니 이것이 매우 중요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돛제는 돼지를 잡아서 본향당신이나 돛고기를 먹는 신에게 바치고 이것을 사람이 나누어 먹은 의례를 말한다. ‘돛(豚)’이라는 말과 ‘제(祭)’라는 말이 합쳐져서 된 것이다. 이를 현지의 본주들은 ‘도새기식개’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쓰고 있다.<sup>3)</sup> 돛제라는 말과 도새기식개라는 말은 둘 다 자연스러운 용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돛제는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일대에서 하는 것으로 여러 마을에서 한다. 월정본향, 세화리 금상한집님, 동북본향 등에서 하는 것이 곧 돛제이다. 돛제는 당제로도 하지만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이 곳을 한다. 돛제는 돼지를 온 마리 바치는 특별한 제의라고 할 수 있다. 돼지고기를 익힌 것과 날 것을 동시에 바치는 것이고 당신이 이를 받고 자손을 편안하게 한다는 특징이 이 돛제에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돼지는 온전한 한 마리를 바치는 것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나중에 의례에서 전물을 바치고 해체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돛제는 돼지를 바치는 신의 음식이 중요하게 간주되는 것이므로 대체로 일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본주의 형편에 따라서 삼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이 절차의 기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 돛제는 여러 군데서 하는 것이지만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본주의 형편 때문에 그러한데 실제로 제주도의 돛제를 세 차례 보고서 이 글을 쓴다. 세 차례 본 내력은 서순실의 신긋이 있던 때에 이 과정에서 파생적으로 있었던 다른 절차이므로 이 곳을 볼 수 있었다. 돛제는 본주 집에서 곳을 준비하고 이를 진행하는 것이다.

3) 2006년 3월 22일에 있었던 돛제에서 본주가 남과 전화하면서 하는 말을 들은 것인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돛제는 일단 제물을 준비하는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이전에는 일종의 부정(不淨)을 가리는 것인데 잠인을 집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산의 새를 가지고 하는 ‘숫’을 건다. ‘숫’은 산디로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혼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산의 새로 하는 것이다. 원새끼를 쳐서 잠인을 금하는 절차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심방이 이를 견고(堅固)하여 문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처음의 절차이다.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집밖으로 나오는 절차가 매우 중요한데 돛제는 이 과정에서 행해진다. 칼감제를 끝으로 해서 이를 마친다.

돛제의 절차에서 본풀이는 일정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것이 긴요한 절차이다. 대체로 본풀이는 돛제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절차가 요즘에는 문제가 있다. 현대적인 조건에서 돛제는 온전하게 전승되어도 본풀이는 전승이 퇴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본풀이는 대체적인 줄거리만을 전승하고 있을 따름이고 실제 전승에 있어서 심각한 축소 전승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돛제에서 온전한 전승이 아니고 축소 전승이 일어난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심방, 본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전승문화의 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풀이의 실체에 대한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의례의 진실성이 심각하게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본풀이를 대충 푸는 것이다. 축소의 일로에 있다고 해서 전승의 원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돛제는 분명하게 본풀이의 주체인 신을 위해서 하는 의례 절차이므로 돛제에서 전승의 실체가 없다고 해도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돛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풀이를 알아야 하고, 본풀이를 알아야만 돛제의 의의나 실체를 꿰뚫어 알 수 있을 것이다. 본풀이와 돛제는 서로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서로 비교하고 관련지어서 연구해야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돛제가 본풀이와 어떠한 관

련을 가지는지 연구해야만 돛제와 본풀이의 관련성을 말할 수 있다. 돛제와 본풀이의 의의는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돛제와 본풀이의 관련에 대해서 김녕리의 사례를 들어서 검토하고자 한다. 돛제 일반에 대한 글은 없고 본풀이의 관련에 대해서 논의를 글이 없다. 돛제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아마도 이러한 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돛제 일반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지의 특징을 보고하고 본풀이와 관련지어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현지에서 고찰한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기왕의 논의에서는 보고 자료만 있을 따름이므로 이를 현지 자료와 함께 연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 자료를 소개하는 뜻에서 하고자 한다.

돛제의 사례가 시사하는 점은 여러 가지 있으나 돛제와 본풀이의 사례가 제주도만의 특수한 사례라는 점이다. 신에게 돼지고기를 바치고 분육하는 일이 돛제의 핵심인데 이것이 본풀이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의례는 있어도 본풀이가 없고, 본풀이만 있고 의례가 없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관련이 제주도에서는 생동하는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점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존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료에 천착해서 문제를 다루는 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돛제와 본풀이의 공존관계가 일반적인 시각에서 어떠한 의의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돛제는 육찬을 바치는 것인데 이는 제주도만의 특별한 일이 아니다. 다른 고장에서도 생타살을 하고 군웅풀이를 하며 돼지를 온 마리로 바치는 것이 구체적인 의례로 존재한다. 이를 망각하면 제주도의 돛제가 각별한 의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돛제의 음식을 바치는 현상은 일반적인 의의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돛제는 일단 제주도에서 포제와 관련된다. 다만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돛제는 육찬을 바치는 마을 수호신에 대한 의례이다. 이는 서울이나 경기도 마을에서 육찬을 받는 신격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돛제는 서울이나 경기도 인근의 대안주거리와 관련이 있으며 황해도 곳에서 하는 군웅풀이나 타살감홍과 관련이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중심으로 일반적인 시각의 돛제가 지니는 의의를 논의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이다.

더 나아가서 돛제와 본풀이가 특수한 국면을 떠나서 일반이론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관련을 지니는지 추론을 전개해야 마땅하다. 돛제와 본풀이가 서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고장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수성이 보편성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거이다. 신화와 의례의 관련성은 여러 학문의 학파에서 줄곧 관심을 가졌던 사실이다. 이 사례를 이론적인 각도에서 확장해서 다루는 시야를 열어야만 새로운 연구의 과제가 확인되고 이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정을 말할 수 있다. 특정한 이론으로 해명될 수 있어야 좋은 사례가 아니다. 오히려 이 사례를 두고서 다른 각도의 이론적 탐색을 해야만 진정한 가치와 의의가 있는 것이다.

## II. 돛제의 의례적 특징

김녕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돛제는 각별한 기억으로 떠오르게 된다. 특정한 날을 잡아서 퀘네깃한집님에게 돛고기를 바치고 자신의 안과태평을 말하고 무엇을 조심하라는 신탁을 받으면 심리적인

안정을 얻는 중요한 계기를 부여받게 된다. 돛제를 하면서 가족이 모여 고기를 먹으면서 신의 신찬을 분식하고 음복하는 즐거움은 가장 큰 즐거움이고 삶의 보람일 수 있다. 돛제를 하는 날에 모여든 가족이나 친지는 신의 보살핌을 받는 존재이면서 신에게 함께 정성을 드리는 신도라고 할 수 있다.

돛제의 실상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에 관련한 문제의 실상을 다루기 위해서 2006년 12월 31일, 2007년 1월 6일, 2007년 3월 22일 등에 있었던 돛제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기로 한다.

돛제 1 (2006년 12월 31일) : 김녕 신삿동 정광진(55세) 조복희(51세)  
씨댁/ 서순실심방

1. '숫' 견고 집에 들어가기
2. 제물진설
3. 돛제 실연
  31. 공선가선
  32. 날과 국 섬김
  33. 집안연유닭음
  34. 신매와들임
  35. 녀들임
  36. 돛고기 열두설반 올림
  37. 케네깃당본풀이
  38. 재비촛점
  39. 산판점
  310. 산받아 분부사뵈
  311. 칼감제 소지사뵈

돛제 2 (2007년 1월 6일) : 김녕 신삿동 김영식(52세) 서순실(46세)씨  
댁/ 이중춘심방

이중춘 심방이 평복을 입고서 돛제를 집전한다. 돛제상을 현관을 향해서 마련한다. 앉아서 복을 양편으로 치면서 의례를 집전한다.

먼저 돼지 온전한 한 마리를 모두 각을 내서 12로 나눈다. 각 부위를 나누어서 머리뼈와 내장, 익은 것과 삶은 것을 각기 나누어서 이를 실제로 구현하는 것이 12설반의 상 차림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 12설반 접시로 상을 차린다.

대체로 일반 스가집 곳에서는 바다에 본향상을 차리지만 심방집 큰곳이므로 본향상을 탁상에 차려서 올린다. 옆에 칼감제를 준비하는 것을 마련한다.

1. 들어가는 말미 : 장즈맛이 벨코사
2. 김녕 <퀘네깃당 본풀이>
3. 상세화리 <금상한집 본풀이> - 백주또 할망 본풀이에서 “오늘 오  
날 오늘이라~”
4. 알잡식 (잡식 양푼을 내감, 칼감제 전물도 함께 밖으로 가지고 가서 비냄)
5. 전배독선: 배에 실기 “선주~”
6. 재비살점
7. 칼감제 소지사름

돛제 3 (2007년 3월 22일) : 제주도 구좌읍 동북리 고태원(75세)집 ‘도 새기식개’/강대원심방(61세)

0. ‘숫’ 걷고 집에 들어가기

1. 초감제

11. 심방이 요령을 흔들면서 세 번 절을 한다.
12. 도업침
13. 공선가선
14. 날과 국 섬김
15. 연유닭음
16. 신도업 젓드리

17. 군문열립
18. 인정결립
19. 신청계
110. 정대우
111. 동북본향본풀이·웨네킷당본풀이구연
  2. 권매장(추물공연, 초감제와 합쳐서 했음)
  3. 조왕제(세부적 절차 생략)
  4. 칠성제(세부적 절차 생략)
  5. 상당숙여 칠변철상
  6. 문전액막이
  7. 돛제
    71. 들어가는말미
    72. 날과 국 섬김
    73. 집안연유담음
    74. 돼지고기 차례로 올리면서 하는 말
      741. 피 내놓는 말
      742. 술·발톱·좌우머리·좌우목도리기·좌우전각·좌우후각·좌우숨·좌우갈리·좌우일문·좌우부피·열두신배·내장 : 복부기·염통·간·대창·지레·콩팥·태두·막은창·큰배설·작은배설·창도릅 등을 바치는 말(신칼점)
      743. 열두설반 올리는 말
  75. 동북본향본풀이·웨네킷당본풀이
  76. 주잔권잔
  77. 산반야 점침 : 신칼점·제비살점
  78. 올래대우 칼감제

돛제 세 가지 사례는 매우 중요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 의례의 보편적인 성격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할 수

있다. 일단 돛제의 의례적 속성이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구조가 발견된다. 이 구조는 특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편적인 것이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돛제는 산긱이 아니라 일단 아진긱이라고 하는데 의례적인 특성이 있다. 제물을 진설하고 제주도의 긱은 아진긱과 산긱이 엄격하게 달라지는데 그 특성이 여기에서 발견된다. 돛제는 아진긱으로 분명하게 기능한다. 아진긱이면서 아진긱의 일반적인 특성을 그대로 구현하는데 돛제에서 이 점이 발견된다. 특히 심방집의 긱에서보다 스가집의 긱에서 아진긱의 특성을 선명하게 드러냈는데 이 점이 곧 돛제의 특성과 일치한다.

‘공선가선’을 말하고 단계적으로 거리를 구현하는 과정은 아진긱의 특성에서 발견된다. 돛제 1에서는 아진긱으로서의 성격을 구현하는데 이른 바 악기의 일종으로 사용되는 ‘요령’이 핵심적인 기능을 했다. 아진긱이므로 간단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악기로서의 구실을 하는 요령을 흔들면서 무가를 구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장귀를 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각도에서 북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요령이다. 요령을 잡고 흔들면서 이를 구현하는 것이 본향당긱이나 아진긱에서 많이 발견된다.

스가집에서 한 돛제의 실상을 제차의 단계에 따라서 해명한다. 공선가선은 아진긱에서 하는 상투어구인데 말의 뜻이 불분명하고, 어원이 밝혀지지 않았다. ‘날과 국 섬김’은 시간적 경과와 공간적 지평을 가졌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는 치국잡기, 단연주, 맨드름 등과 일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주의 창생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베포를 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형식을 줄여서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집안연유닭음’은 이 돛제를 왜 하는지 이를 밝히고 고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스가집에서 하는 것이므로 돛제를 해결이로 하는 사연을 신에게 고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돛제는 3년에 한번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련한 절차를 고한다. 신을 매와 들이는 절차가 이어서 행해진다. 신을 매와 들이는 것은 돛제 전반에 동원하는 신격을 모두 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신격은 쌀로 명세를 올리는 것이므로 이 절차에서는 돛제에 대한 직접적인 신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쌀로 받는 신격의 총체적인 절차이고 본향당신의 전반에 대한 절차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넛들임’을 했다. 넛들임은 본격적으로 별도의 절차인데 아마도 돛제에 덧붙여서 신을 놀리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본주가 간청했으므로 이를 곁들여서 해준 것이라고 하겠다. 넛들임은 사고나 놀랄 만한 일이 있어서 넛이 나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넛을 들이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혼을 초혼, 이혼, 삼혼 등으로 청해서 이를 본인에게 넣어주는 행위를 한다. 넛들임에서 중요한 것은 놀란 혼을 찾아주는 행위이다.

미식으로 받은 신격에 대한 절차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돛고기를 열 두 설반’으로 잘라서 그릇 수대로 만들고 바치는 일을 한다. 이 일은 순전히 집안 남성의 일이었다고 말한다. 돼지고기의 전체 부위를 잘 아는 남성이 칼을 가지고 이를 삶아서 고기를 각을 떼서 나누는 일을 하는데 이 일은 이제 예전처럼 하지 않는다. 이 행위는 모두 푸줏간의 일이고 각을 떼오는 일을 모두 해오기 때문에 이를 남성이 써는 일만을 하는데 그래도 남성이 있어야만 고기를 써는 일을 할 수 있다.

이 집에서는 쉽사리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한 인물이 있어서 이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고기를 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다. 머리고기, 솔디, 전각, 후각, 갈비, 숨, 쪽작배, 비피, 일룬 등을 비롯해서 내장인 지레, 썰게, 우간, 좌간, 콩뿔, 염통, 불배기, 배역기, 대창, 막은창, 굴

근배설, 졸진배설 등을 차려서 내장을 따로 고기로 삶고, 삶고 난 국물에는 몸을 넣어서 이를 국을 끓이는 '뭇죽'을 '한집님'의 속풀이용으로 올린다. 이것이 곧 뭇국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올리는 것을 다시 고기를 조금씩 나누어서 여덟 그릇으로 나누어서 바치는데 이것이 분배의 뭇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돛고기는 모두 가져가는 뭇이 따로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잡알'로 바치는 신격의 뭇이 있는데 이들을 위한 '신명질'을 하던 인물을 위한 칼감제를 하게 된다. 이것이 곧알잡 뭇의 그릇인데, 식칼을 가져다가 지라를 생것으로 쪄고 고기와 내장을 신명질을 하던 혼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곧 이 칼감제의 제물이라고 할 수 있다. 여덟 개로 바쳐진 것을 나누어서 이를 심방이나 여러 사람을 위해서 나눈다.

돛제의 중심 부위가 곧 고기를 '열두 설반'으로 올리는 일과 함께 이 신의 내력을 푸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육식을 하는 신을 위한 본향당굿의 핵심이 이 절차이다. 그런데 이 절차는 이제 온전하게 전승되거나 연행되지 않는다. 전승은 되는데 연행은 안된다고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할지 모르겠다. 전승은 온전하지는 않으나 돛고기를 올리고 각을 내서 하는 일이 제물진설로 가능한데 돛제의 본풀이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편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연행은 가능한데 여러 요인 때문에 전승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것은 무슨 요인 때문인가? 본질은 잊고 행위만 남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신성성의 소멸과 일정한 관련이 있다. 본주집의 사정은 종교적인 관습만을 알고 있을 따름이지 이 의례가 어떻게 행해지는지 사연을 알지 못한다. 본풀이를 구체적으로 모르고 이에서 파생된 종교적인 의례만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제자는 온전히 구비전승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굿을 의뢰한 본주집은 이

문면을 잊어먹고 전승만을 하고 있다. 연행이 가능한데도 전승이 위기에 몰리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현대인의 시간관념 역시 단단히 한 묶을 한다. 내용 파악이 온전하지 않은 것을 오래도록 듣고 있기가 어려운 것이 현재의 본주이고 신도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제의는 실제로 오랜 시간을 요구하지 않는다.

심방집의 곳에서나 혹은 전문적인 사람들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이나 본풀이를 이야기의 내용을 상세하고 자세하게 하면서 연행의 시간을 오래하는 것이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적극적인 청중 앞에서 심방은 다시금 적극적인 구연자로 구실을 하면서 본풀이를 구연하는 것이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소극적인 청중인 본주에게는 본풀이를 간단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청중의 적극적인 후원이 없는데 본풀이가 온전하게 구연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헛된 일인지 모르겠다.

돛제의 주신을 청하고 그 신에게 여러 가지 사정을 묻고 신탁을 받는 일은 당연한 순서이다. 본풀이로 신의 내력을 말하고 이어서 재비살점과 산판점을 치는 것은 바로 신의를 묻는 절차이다.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쌀을 가지고 신의를 헤아리는 것은 고귀한 일이고, 산판점을 치는 것은 쌀점과는 다른 각별한 신의를 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의를 묻는 본주에게 신의 뜻인 신탁을 전하는 것을 흔히 분부사림이라고 한다. 가령 무엇을 조심하라든지 무엇이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하라는 것이 분부사림의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신의를 묻는 행위를 하고서는 소지원정을 들이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를 태우고 동시에 알잡으로 둔 고기를 가지고 나가서 신명질을 한 인물을 위해서 칼감제를 하는 것으로 돛제의 결말이 이루어진다. 신명질은 돼지나 소 또는 개 등을 잡는 일을 한 사람을 위



한 것이다. 돛제에 사용되는 돼지를 잡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칼감제이다. 그런데 이를 다른 심방에게 거무영청의 굿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묻자 같은 일이라고 이르는 것이라고 보아서 백정과 같은 일을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칼감제임을 알 수 있다.<sup>4)</sup> 심방은 챙겨서 입고 나가서 칼감제를 하고서 굿을 마친다.

돛제 1은 동일한 지역의 스가집의 굿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렇다면 심방집의 돛제는 어떠한 식으로 하는지 궁금한데 대체로 절차는 일치하지만 규모나 의례적인 진행 방식에 있어서 매우 각별한 의의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큰굿의 일환으로 돛제를 하는데 이에 대한 관찰은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sup>5)</sup> 이 가운데 하나가 곧 돛제 2이다. 일단 단순하게 요령만을 잡고서 굿을 하는 것과 다르게 실제로 울복을 양편으로 갈라서 치면서 이를 하는 것이 마련된다. 본풀이를 온전하게 풀고 실제로 굿을 하는데 있어서 제물진설을 잘 이루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심방집에서는 특별하게 도진을 하지 않으므로 칼감제를 끝으로 해서 굿을 마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돛제 2에서는 기본적으로 본풀이의 구연에 치중했다. 돛제를 받는 신격이 있어서 이들에 대한 본풀이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음이 확인된다. 하나는 이른 바 <궤네킷당본풀이>와 <세화리 금상한집본풀이>가 차

4) 이러한 사실은 이중춘심방에게 돛제를 하는 것을 보고 묻자 답변한 바이다. 이중춘은 돛제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었다. 2006년 12월 31일에 있었던 대담에서 이에 관련한 이야기를 증언해주었다.

5) 2006년 3월 3일에서부터 3월 9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7일간에 한 굿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 돛제 : 삶은 돼지의 각을 떠서 12설반을 준비 19.1 공선가선 19.2 날과 국 섬김 19.3 서낭풀이 19.4 궤네킷도본풀이 19.5 배방선용 음식 넘김 19.6 재비술점 19.7 음복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례대로 구연된다. 퀘네깃도와 금상한집 모두 돼지고기를 받아먹는 신격이므로 이들의 본향당본풀이가 구연된 것이 각별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돛제 2의 특색은 본풀이를 정식으로 하고 상 차림을 탁상을 차려놓고 하는 점에 차별성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아진굿으로 하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굿의 근간에 아진굿의 본풀이 의식이 있는 점이 발견된다.

돛제 3은 김녕리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사례이나 돛제의 성격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자료이므로 이를 보완적 자료로 삼고자 한다. 동북리에서 이루어진 돛제이지만 돛제의 성격을 온전하게 아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김녕리의 돛제와 다르게 다른 집안의 가신제인 각도비념을 겸하는 것이었으므로 돛제가 전부는 아니었으나 다른 의례적 절차와 어떻게 결합하는지 알 수 있는 자료이므로 소중하다. 본풀이를 어느 대목에서 어떻게 구연하는지 확실하게 아는 자료이기도 하다.

현상에 대한 기술이 돛제의 의례적 성격을 말하는 것의 전부는 아니다. 오히려 현상적인 기술의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특징이 있는지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온전하게 논의되어야만 문제의 소지가 분명해지리라고 본다. 돛제는 어떠한 굿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돛제에 대한 이해의 근거에 반드시 해명되어야 할 것은 육식의 신격에게 음식을 바치는 것이 돛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음식을 신에게 바치고 이를 나중에는 인간들이 먹은 것이 요점이다. 신에게 공헌을 하고 이를 다시 인간들이 나누어먹는 것이 요점이다. 음식문화의 관점에서 이를 접근해야 하는 것이 논의의 단서라고 할 수 있다. 명백하게 돼지의 영혼에 대한 의례는 결코 아니다. 돼지가 많이 잡히도록 하는 절차는 결단코 아니다. 동물인 돼지를 섬기는 토템의 상징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결국 돼지를 잡아먹으려는 사고의 소산이 이러한 당제나 돛제를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온전한 이해의 단서가 마련된다.

돛제는 미식을 하는 신격과 육식을 하는 신격의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이 갈등을 어떻게 볼 것인지? 이에 대한 해석을 문제삼아서 논의한 견해는 여럿이 있다.<sup>6)</sup> 그러나 기왕의 논의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양상이 일정하지 않다. 돛제만을 받기로 한 경우, 미식과 육식이 갈등을 벌이는 경우, 육식이 남신과 여신으로 모두 나타나는 경우로 매우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김녕리의 돛제에서는 육식만을 하는 남신이 중심에 서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로 되어야 한다. 돛제를 받는 경우는 다양하지만 일단 하나를 정하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단계에서 문제를 확장하는 것이 논의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김녕리의 돛제는 순전히 남신이 육식인 돼지고기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 논의에서 간과한 것은 왜 육식을 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무턱대고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인 전이가 있었다. 자신의 등장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마을 사람에게 존재를 알리는 수단으

6) 진성기, 《남국의 무속》, 형설출판사, 1987, 9-16면.  
 현용준, 제물과 신들, 《제주무속연구》, 집문당, 1986, 199-205면.  
 권태효, 《전국신화와 당신신화의 상관성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문무병,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강정식,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현용준, 당신신화,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162-171면.  
 김현선, <세화리당신본풀이>의 식성 갈등 구조 - 이달춘 구연본을 중심으로 -, 2004, 미발표 원고.

다섯 가지 글에서 제물로 돼지고기를 먹는 신들에 대한 일관된 견해를 펴고 있다. 이 견해의 논의는 타당성이 있으나 문제는 그래서 어떠한 의의가 있는지 논의의 전을 피하면서 말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이를 식성 갈등으로 이해하는 논의는 있었는데 이것이 과연 제주도에만 국한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로 이러한 방식을 택했는데 이 점이 무시되었다. 그것은 마을의 흉년이 되도록 한 것이다. 게다가 사람들에게 질병을 준 것이 본질이다. 자연과 인간의 양면에 모두 조화를 부릴 수 있었던 것이 본질적인 면모이다.

신과 단골이 만나서 합의한 것이 첫 번째 음식인데 이 음식이 곧 황 밧갈쇠이다. 최초의 계약은 소를 온 마리로 받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신의 음식은 한 차례 수정되었다. 마을 단골이 어려워하므로 이를 수정해서 뜻으로 수정한 점이 주목되어야 마땅하다. 돼지로 수정한 것이 중요한 변화이고 뜻제로 확정되는 면모인데 이 변화의 이면에 중요한 것이 곧 마을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격심한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농사가 흉년이 되고 몸에 흉험을 주어서 살아갈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의 요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응분의 대접을 받은 것이 음식 계약의 요점이다.

그런데 문제는 단골들이 돼지고기를 확정하지만 그 후에 음식에 대한 상세한 분해를 기록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돼지고기에 대한 절개와 자를 뜨는 것을 일관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고기를 분육하고 이를 신에게 온 마리로 바치는 것이 의례 이상의 실용적 음식문화 이해에 기초하고 있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분육만이 아니라 분육을 한 것을 날 것과 익힌 것으로 나누고 이를 단계적으로 바치는 과정이 이채롭다.

게다가 익힌 음식에도 차이가 있어서 삶은 고기와 삶은 고기의 국물에다가 몸을 넣고 메밀가루와 합쳐서 국을 끓이는 것인데 이것이 곧 '몸국'이고 반드시 이 몸국을 올려서 한집님의 속풀이 음식으로 대접해야 한다는 신앙적인 음식을 대접하고 있다. 이것이 곧 돼지고기를 단계적으로 대접하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팥, 쌀, 내장 등이 하나도 버려지지 않는 현상을 여기에서 만날 수 있다.

뜻제는 육식하는 신을 위한 의례라고 할 수 있으나 이것은 표면적인

관찰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실제로 의례 내용에서 육식을 하지 않는 신격과 육식을 하는 신격을 둘 모두 섬기고 이를 전개하기 때문이다. 명세를 올린 쌀을 바치면서 굿의 서두를 장식하고 이어서 육식을 하는 신을 위한 음식을 차리는 점이 결국 차별성을 전제로 하는 굿임을 말하고 있다. 돛제만이 전부가 아니라 돛제를 중심에 두고 하는 전반적인 의례임이 분명하게 인지된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육식과 미식의 갈등을 전제로 하는 신격이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돛제를 하는 본향당신은 <세화리금상한집>, <월정본향>, <토산일렛당한집> 등은 그렇게 해서 생긴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도 모두 돼지고기와 일정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의 신화적인 내용과 의례 구성은 각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 본풀이는 각기 다른 의례적인 기원을 말하고 있다.

돛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원만한 결론에 이를 수 있는지 문제가 더욱 예각화된다. 하나는 포제와의 관련성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포제에서도 돼지고기를 주요한 고기로 사용하므로 이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돛제와 포제는 상호 무슨 관련이 있는지 여지껏 입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돛제는 비단 돛제만의 독자성으로 보아서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을 가져야 하리라고 본다. 그에 대해서 앞의 것은 좀더 신실한 현지 연구를 통해서 논의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뒤의 것은 당장 증명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 유사한 것으로 우리는 황해도 굿 가운데 타살감홍굿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이 굿거리에서는 돼지고기를 전물로 사용하는 점에서 제주도의 돛제와 성격이 상통한다. 생타살과 익은타살이 있는 것도 뚜렷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이러한 굿은 특정한 시기에 하는 것으로 3년에 한 번하는 굿에서 이

타살감홍을 한다. 타살감홍은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거리와 관련성을 가지면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돛제에서 하는 절차와도 흡사한데 신을 청하고 신의 말을 전하고 이를 모시고 놀이를 하는 것이 타살감홍의 구체적인 절차인데 이러한 절차를 앉아서 하지 않고 서서 하는 점에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문제의 요점이 드러난다. 본풀이가 있는 경우가 제주도의 것이고, 다른 고장에서는 이에 대한 내력을 말하는 본풀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더욱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마을신인 본향신과 관련이 없이 이 굿이 진행된 결과라는 점이다. 육찬을 받는 신격을 위하는 제차에서 군웅풀이를 하고 나서 다음으로 하는 것이 곧 타살감홍이다. 생타살과 익은타살을 하면서 대감을 높고 하는 것이 곧 이 거리의 특징이다. 대체로 특정한 신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장군과 대감이 이 육찬을 받는 신격이라고 이해된다.

돛제는 분명히 제주도의 독특한 형식이지만 다른 고장의 굿과 견주어서 본다면 그렇게 각별한 것은 아니다. 보편성을 논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제주도가 특정한 마을신과 관련을 가지고 여기에 일정한 본풀이를 갖추고 있는 것은 특수한 국면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돼지고기를 육찬으로 받는 점에서는 그렇게 예외적인 것은 아니다.

특히 서울지역에서 행하는 부군당굿을 본다면 돼지를 부군당신에게 바치고 나서 사슬을 세운 뒤에 이 제물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고기를 나누는 분육을 하고 이를 내장을 가지고 이를 국으로 주는 순대국의 제물은 매우 각별한 면모가 있는 공통점을 말할 수 있다. 마을의 신격인 부군당신에게 바치는 음식의 전례를 가지고 본다면 돛제는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다. 제물을 돼지고기가 아니라 소고기로 쓴다고 하더라도 결

국은 같은 현상이라고 하겠다.

돛제는 앞에서 말한 포제나 다른 곳에서 쓰는 돼지고기의 육찬으로서의 성격을 비교해야만 이에 대한 이해를 진척시킬 수 있다. 제주도에 서 분육을 하는 과정이 좀더 세밀하고 이를 본풀이와 엮어매서 해명하려는 것은 인상적인 일이지만 이것이 좀더 세련되고 봉송 또는 반기를 하는 전통으로 본다면 집안 단위나 마을 단위로 철저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돛제의 각별한 점이라고 하겠다.

요컨대 돛제는 아진곳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한 아진곳의 제차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돛제는 소찬과 육찬을 받는 신격의 관계 속에서 진행이 되고 육찬의 신격을 향해서 하는 제차 속에서 본풀이를 하고 이에 대한 신탁을 행하는 것이 각별하게 발견된다. 그런데 이 돛제는 제주도만의 특수성은 있지만,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돛제는 일반적인 의의를 가지는 것이 확인된다. 다른 지역의 진적곳이나 부군당 곳에서도 이 거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교를 본격적으로 시도할 것을 요구한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소찬과 육찬을 하는 신들의 식성갈등만으로 이를 해소할 수 없는 본질적인 국면이 두드러진다. 곳거리 구성이나 신들의 다툼이라는 요인들이 있어서 이를 두고 전반적인 것을 비교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는 신들의 다툼으로 이 점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비교하는 준거를 제주도에서 찾는 일이 바람직하다.

### Ⅲ. 〈퀘네깃당본풀이〉의 영웅서사시적 면모와 시대적 성격

본풀이는 돛제의 핵심적 부분이면서도 독립적인 의미를 갖는 대상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본풀이는 어떠한 의의가 있는지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본풀이는 제주도의 북동부 또는 동북부에서 널리 분포하는 본풀이의 유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서 논의를 하기로 한다.

본풀이에서 중요한 것은 식성의 갈등이 주안점이라는 사실이다. 이 본풀이에서는 서두가 이 갈등을 전제로 한다. 이를 서사단락으로 정리하기로 한다.<sup>7)</sup>

- 1) 금백주가 소천국에게 농사지으라고 권유하여 소천국이 농사를 짓다.
- 2) 느진덕이정하님이 점심밥을 가지고 오자 높은 동산에 두고 간다.
- 3) 삼배중이 지나다가 시장하다고 해서 소천국에게 시장끼를 면하자고 부탁하자 이를 먹으라고 하자 제반삼술을 거두고서 간다.
- 4) 소천국이 밭을 갈다가 시장끼를 느껴서 밖으로 나왔다가 삼배중이 먹은 것을 먹을 수 없다고 하면서 밭을 갈던 소를 잡아먹고 그것도 부족해서 오름새끼의 질오름 앞에 있는 부랭이를 한 번 더 잡아먹는다.
- 5) 소천국과 금백주가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서로 살림을 길라서게 된다.
- 6) 배주님이 뱀 아기를 낳아서 이 아이를 알손당으로 데려와 소천국에게 보이자 소천국에 용심을 써서 결국은 아이를 무쇠철갑에 담아서 동이와당에 띄우게 된다.
- 7) 무쇠철갑이 동해요왕황제국에 다다르자 여기에 세 딸이 있어서 결국 막내인 죽은 딸이 무쇠철갑을 내리게 된다.

7) 서순실이 쓴 <케네깃당본풀이>는 돛제에서는 직접 상세하게 풀지 않았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온전한 자료를 구연할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신에 두 차례에 걸쳐서 상세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 바 있는데 그것이 다음과 같은 경우라고 하겠다.

<돛제본풀이>, 서순실심방 자택, 1999년 9월 17일.

<케네깃당본풀이>, 한국무속학회 동계발표회, 국립국악원, 2006년 12월 2일.

두 판본은 대체로 일치한다. 그런데 두 판본은 서로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판본의 내용에 있어서 상세한 것은 후자이다. 원숙한 구연 능력이 곧 이 판본에 상세하게 나타난다.



- 8) 요왕황제가 신분을 알아내고 족은딸과 혼인을 시켰으나 식성에 문제가 생겨서 갈등을 하게 되는데 요점은 밥, 술, 고기 등을 장군으로 먹는다고 하자 이를 사위에게 대접을 못하겠느냐고 하면서 허락을 한다.
- 9) 요왕황제국이 창고가 비어지는 어려움이 생기자 아들과 족은딸이 다시 버림을 받게 되는데 이 때에 활과 화살을 얻어서 강남천제국으로 향하게 된다.
- 10) 강남천제국에서 아홉 장군을 해치우고 그곳에서 제주도를 차지하려고 하는 명을 받고서 제주도로 오게 된다.
- 11) 제주에 와서 옷손당을 보고 아들이 다가서데 되자 부모가가 아들로 인해서 좌정처를 정하게 되는데 옷손당과 알송당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좌정처를 정하는 것인데, 모두 아들의 부술 때문으로 되어 있다.
- 12) 일곱째 아들이 좌정처를 정하려고 여러 곳을 다니는데 결국은 온전한 좌정처로 김녕지경을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아들의 정체를 대접하는 사람이 없어서 요왕황제국에 연락하여서 비바람을 주어서 결국 농사가 온전하게 진행되지 않게 된다.
- 13) 김녕마을에서 여러 사람이 이를 알고서 망동산에 가서 장수를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연을 듣고서 비바람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자 비바람을 그치게 해서 농사가 아주 잘되게 된다.
- 14) 좌정처를 정하고서 황밭갈쇠를 받을 것을 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힘들게 되자 이를 돛도구리의 돼지로 수정을 하게 되고 여기에 들에 가서 하던 것을 무진년 사삼사태 때문에 일문전에서 하게 된 것을 말한다.
- 15) 고기를 대접하는 것을 말하고서 다음으로 하는 것이 곧 고기의 분육과 고기를 바치면서 하는 비법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 본풀이에서 갈등의 중심에 바로 소천국의 일곱째 아들이 있음이 확인된다. 이 아이가 갈등의 요점은 단순하지 않다. 부부사이의 가족이라는 범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혼인을 위한 새로운 가족의 구성 범위에서 다시 이를 재현하되 제주도와 요왕황제국이라는 차원을 더하고, 제주도와 강남천제국이라는 새로운 범위의 차원에서 승화를 이루고

있으며, 다시 되돌아와서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을 재현하고, 신격인 장수와 김녕 지역 단골의 갈등을 재현한다.

이 갈등의 핵심에 곧 식성 갈등이 자리잡고 있다. 갈등의 요체는 식성과 대식이 문제된다. 첫 번째 갈등은 부부갈등이다. 소천국과 백주또가 갈등한다. 소천국의 육식과 수렵을 멈추게 하고서 백주또가 결국 농사를 권해서 이를 하는 것이 곧 소천국의 농사 전환이다. 그런데 전환에 문제가 생겼다. 이 갈등에 삼배중이 개입되어 있고, 백주또의 뱃속에 일곱째 아기가 있었다. 일곱째 아기는 원인이고, 삼배중은 근인이다.

그런데 어느 각편에서 '삼배중'은 등장하는데 양상이 일정하지 않다. 삼배중은 중이므로 고유의 신격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외래의 신격일 가능성이 있다. 갈등을 일으키는 양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천국의 음식을 모두 먹고 가서 먹을 것이 없게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여기에서처럼 삼배중이 먹는데 '제반삼술'을 걷는 것이 기본적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가지 양상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소천국이 농사를 포기하고 육식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분명하게 제기했다는 사실이다.

육식으로 전환하는 실상은 밭을 갈던 황밭갈쇠를 부정하는 것이다. 국과 밥을 먹는 것을 포기하고 이를 잡아먹는 일을 감행한다. 동시에 자신의 소만이 아니라 남의 밭에 있는 부랭이를 잡아먹은 것이 육식과 야생으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고기를 먹고 이 때문에 살림이 갈라지는 운명을 겪는다. 이 중심에 곧 일곱째가 가로놓여 있다.

일곱째는 부부갈등의 원인이라고도 했으나 실상은 부자갈등으로 전환하는 특성이 있다. 일곱째를 가진 상태에서 서로 갈라서게 되었다는 점이 그러한 사실을 반증한다. 동시에 일곱째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불손한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한 반론인데 이 반론의 요점에 부자갈등의 전형적인 면모가 들어있다. 일곱째가 불손한 행위를 해서 둘 사이의 갈등이 생긴 것을 중심으로 한다.

부자갈등의 귀결은 무쇠설갑에 담겨져 버림을 받는 일이다. 기아의 요소는 영웅적인 인물의 전형이라고 하겠는데 여기에서도 기아의 모티프는 소중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기아는 부모의 영역을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서 자신의 영역을 개척하는 특징이 있다. 기존의 영역에서 버림받아 새로운 곳으로 가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판도를 개척하는 것은 영웅의 일생에서 당연하게 마련되는 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판도에 나가서 일곱째 아들이 하는 일은 자신의 식성을 실현하는 일과 배우자를 정하는 것이다. 요왕황제국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사연은 신성한 존재의 인지이다. 장인이 후견인이 되어서 세 딸로 하여금 이적을 체험하게 하는데 이 가운데 진정한 인물은 오로지 세 딸 가운데 막내딸이 이 임무를 온전하게 수행한다. 물의 낭 상가지에 걸린 것을 알아보는 것, 무쇠설갑을 여는 것, 신성한 존재가 선택하는 배우자에 자연스럽게 세 번째의 딸이 이 임무를 수행하기에 이른다. 황제가 후견인이 되어서 마침내 세 번째 인물이 여기에 선택되어서 혼인을 하기에 이른다.

배우자를 선택해서 혼인을 하지만 문제가 새삼스러이 대두된다. 이것이 식성갈등의 형식을 선택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대식성이다. 밥, 술, 고기 등을 많이 먹는 것을 대식이라고 했는데 대식에서 문제되는 것이 이 인물에게 음식을 양껏 먹을 수 있겠는지 하는 점이다. 요왕황제는 이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에 기꺼이 응하지만 황제국의 살림살이가 거덜이 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다.

결국 여기에서도 아내만을 얻은 채 쫓겨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활과 화살을 얻는 일을 한다. 영웅의 능력을 증명하지만 신성한 존재가 작은 나라에 머물 수 없다는 사실만을 확인한다. 다만 영웅적 능력을 배가할 수 있는 무구이자 무기인 활과 화살을 얻는 일이 요점이 된다. 영웅에게 필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인 무기를 얻은 점이 여기에서 긴요하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김녕에 이르러서 마을 사람들에게 승협을 줄 때에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곧 부술이다. 부술의 도움을 얻는 것도 긴요한 능력 수행의 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강남천자국의 세변 난리에 참여해서 그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실현하는 일을 한다. 적대자를 물리치는 일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분명하지 않다. 적대자의 종류 역시 마땅하지 않게 묘사된다. 다른 버전에서는 머리가 하나, 둘, 셋, 아홉 등으로 단계적인 진척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홉 장군이라고만 되어 있다. 그래서 국난을 막았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제주도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것이 영웅적인 행위이고 능력인데 이 영웅능력의 현시는 문제가 있다. 자신의 소속 집단에서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멀리 떨어진 강남천 제국에 와서 능력을 시현한 것 때문이다. 이 능력 구현 문제는 영웅의 활약상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어머니의 나라에서 생긴 변란을 바다를 건너가서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능력의 구현은 결국 자신의 근원지에 이르러서 능력을 발휘한 것에 요점이 있다.

제주도의 좌정처에 와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는데 부모와 아들의 갈등이 한 차례 조정되고 있다. 자신을 축출한 댓가를 치르는 것이 곧 이 갈등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각기 좌정처로 잡아서 신으로 받을 수 있게 하고 자신은 새로이 좌정처를 찾아서 옮기

게 된다.

그곳이 곧 김녕리 망동산인데 이곳에 좌정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다. 자신의 식성을 충족할 수 있고 신성성을 인정해주어야만 한다. 그래서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일을 한다. 그것이 곧 마을의 흥년을 들게 하고 신성한 권능을 보이는 것이다. 적대자가 아니고 신성한 존재로 군림해야 하므로 신성성을 인정받은 행위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마을사람에게 결국 식성을 충족하는 일을 하고 육식을 할 수 있는 약속을 받은 뒤에 김녕리 퀘네깃당에 좌정을 한다.

밥을 먹고 무엇을 하는지가 긴요한 과제이다. 식성 갈등에서 요점은 범인과 다른 영웅적인 권능의 상징으로 돼지고기를 먹는 일이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퀘네깃도는 신성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신성한 권능에 대한 댓가로 필요한 것이 곧 돼지 온 마리를 바치는 dot제를 한다고 하는 것이다. dot제는 신성한 존재와 마을을 수호하는 존재에 대한 숭양의 예물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퀘네깃도는 전형적인 영웅의 과업을 완성하는 신이다. 영웅신이므로 적대자를 물리치고 범인과는 다르게 대식과 육식을 사랑하는 것이 기본적인 면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본풀이는 영웅서사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본풀이 가운데 당신 본풀이가 영웅서사시의 흔적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것은 특별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지역에서 발견되는 본풀이는 그것이 독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지역의 본풀이와 일정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본풀이의 내용이나 유형이 일치하는 것이 매우 많다. <퀘네깃당본풀이> 역시 동일한 실정이다. 이 본풀이의 형식과 내용은 다른 지역의 것과 일치되는 것이므로 주목할 만한 본풀이라고 할 수 있다.

본풀이에는 일반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 당신본풀이 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상식적인 발언이 되었다. 문제는 이것이 적절한 개념인지 의문이 든다. 일반신본풀이는 삼천전저석궁의 메인 여러 신격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데 본풀이를 푸는 방향을 보면 이점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를 내용만을 기준삼아서 일반신본풀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조상신본풀이는 타당한 용어라고 생각하며 당신본풀이는 타당하다.

그런데 일반신본풀이는 신들의 역사인데 제주도의 고유한 요소라기 보다는 외지에서 들어온 것이 많다. 반면에 조상신본풀이와 당신본풀이만이 오로지 제주도의 특별한 본풀이라고 판단된다. 이 가운데 영웅적인 능력을 고유하게 구현하고 있는 것이 곧 당신본풀이이다. 그 가운데서도 영웅적인 본풀이의 성격을 분명하게 하는 본풀이는 <케네깃당본풀이>라라고 할 수 있다.

당신본풀이는 전승과 연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영웅서사시임이 분명하다. 영웅서사시는 전승이 중단되었거나 전승된다고 하더라도 의례의 맥락을 잃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제주도의 당신본풀이는 곳의 맥락을 잃지 않고 살아있음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그래서 당신본풀이는 살아 있는 영웅서사이이고 그 기능과 성격을 하고 있는 본풀이임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앞에서도 찾은 것처럼 돛제를 하는 지역에서 본풀이는 상관적으로 여전히 행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되는 폭넓은 이해가 요구된다. 돛제는 본풀이를 포함하는 곳이지만 이 곳을 통해서 전반적인 본풀이의 이면과 돛제의 표면이 함께 밝혀질 수 있는 핵심적인 것임이 새삼스러이 드러난다고 하겠다. 돛제는 육식을 하는 신에 대한 의례이고 이 의례에 본풀이가 있는 점은 이미 밝힌 바 있다.

육식을 하는 신과 미식을 하는 신의 갈등이 본풀이에 명시되고 본풀

이의 주된 면모를 이루는 것은 제주도의 당신본풀이에서 발견된다. 그러한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할 것은 본풀이에 명시된 육식과 미식의 갈등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의문이라고 하겠다.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 접근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게 제기되고 해명되지 않았다. 위의 본풀이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다.

퀘네깃도는 백주또와 소로소천국의 아들이다. 백주또는 미식을 권유하고 육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인물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소로소천국은 미식을 위해서 농사를 짓다가 삼배중과의 갈등을 통해서 다시 육식으로 되돌아간 인물이다. 삼배중의 성격이 무엇인가? 이 문면이 옳다면 그리고 다른 각편들과 비교하면 역시 절의 중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sup>8)</sup> 중이 나서서 소천국의 음식을 모두 먹었거나 일부 앞질러 먹어서 소천국의 육식으로 복귀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적어도 이 문면에서 심각한 갈등의 양상을 다시 발견하게 된다. 육식과 미식의 갈등이 본질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백주또와 삼배중은 밥과 국을 먹는 인물이라고 하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반면에 미식을 영위하려고 하던 소천국은 육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들 인물과 대립하는 인물이다. 식성의 갈등은 드러난 문면만이 아니라 이면에 심각한 이념과 종교적 성격에 차이가 있음이 드러난다.

이것은 무엇인가? 제주도 본풀이에 흔히 발견되는 토착신과 외래신의 갈등이 문제이다. 백주또는 외래신이고 여성이고 미식을 하는 신이다. 이에 반해서 소천국은 토착신이고 남성이고 육식을 하는 신격이다. 불박이로 농경을 하는 신격이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 남성을 만나서 불

8) 서순실심방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이달춘심방의 <퀘네깃당본풀이>의 구연본에는 '태산절 중'이라고 되어 있다. 이 본풀이는 다음과 같은 책에 기재되어 있다.

현용준, 퀘네깃당본풀이,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637면.

박이로 삶을 경영하는 방식을 알려주었다가 결국 토착신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이를 거부하게 된 것이 본질이다.

토착신이 다시 수렵을 하는 신으로 바뀌는 측면이 여기에 있다. 동시에 외지에서 온 신은 그 자신만이 온 것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이에 관한 미식의 신격까지도 가지고 왔다. 곧 미식을 하는 신앙과 관습을 가져오기도 한 셈이다. 소천국이 밥을 못먹어서 소를 때려잡은 것도 있지만 중이 먹은 것을 먹을 수 없다고 해서 삼각의 갈등처럼 보이게 한 요인도 있다. 본풀이에서는 식성 갈등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과 어울려서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토착신과 외래신의 갈등은 심각하다. 그런데 아들인 케네깃도는 이 갈등을 합쳐서 극복하는 존재임이 분명하다. 육식이 편중되어 나타나지만 육식을 하기 위해서 단골을 끌어들이는 요인은 결국 마을의 풍년을 방해하는 것이 목적이다. 농사가 되지 않게 해서 단골을 사로잡아 신앙민으로 만들고 이들에게 황밭갈쇠나 황밭갈쇠의 크기만한 돼지를 받게 되는 신이 된 점이 주목된다.

더욱이 소중한 것은 케네깃도가 다시 어머니가 온 여정을 되돌아가서 어머니가 솟아난 땅의 세번난 또는 국난을 막고서 다시 제주도로 오는 점이다. 비록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버림받았지만 어머니의 나라에 이르렀다가 아버지의 나라로 오는 기이한 체험을 하고 미식과 육식을 모두 통합하는 식성의 조화를 실현하고 있다. 이 점이 아주 특별한 면모라고 할 수 있다. 종래의 연구에서 이 점이 소홀하게 취급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요한다. 그러나 이 본풀이에서만 유용한 것이 지 본질적으로 다른 뜻제의 본풀이에 모두 상통하는 견해는 아니다.

케네깃도가 극복하는 육식과 미식의 갈등은 요왕황제국에서도 유용하다. 분명하게 음식을 명시하기를 각편에서는 술, 밥, 고기 등이 장군



이라고 했다.<sup>9)</sup> 육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인물의 행적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합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이 부인되지 않는다. 이 본질은 다른 각편에서도 유용하다. 아무튼 통합자로서의 인물 행적은 나중에 실현되고 실현을 위해서는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를 새롭게 신격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좌정처로 나아가야 한다.

식성 갈등을 넘어서서 마을의 사회적 통합을 꾀하는 점이 매우 주목되는 현상이다. 본풀이에 돛제의 비밀을 밝히고 명시하면서도 이 본풀이에 입각한 사회의 통합이 구현되는 점이 아주 중요하다. 신들이 대립이 이념과 종교의 대립이었고 남녀의 대립이었으며 외지인과 제주도 사람의 대립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서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 바다와 섬의 갈등이기도 했다.

이러한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는 것은 본풀이에서 해법으로 삼은 양상이 영웅의 행위였다. 적어도 한 마을에서는 켈넛깃도의 이름 아래 사회를 통합하고 정체성과 일체감을 주는데 깊은 노력을 한 결과임이 분명하다. 본풀이는 전체를 지향하고 이를 규범과 헌장으로 명시한다. 이것이 본풀이의 진정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돛제에서는 본풀이에 명시된 사회통합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임무의 실행을 조건으로 한다. 마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의 이름인 켈넛깃한집님 또는 켈넛깃도를 내세워서 인간의 모든 행위를 이에 복속하면서 이에 고하고 이에 의한 행동을 하는 점을 분명하게 했다. 이것이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본풀이는 규범이라고 한다면 돛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켈넛깃도본풀이>의 시대적 성격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으

9) 다른 각편 가운데 이달춘구연본에서는 '소도 온 마리 돼지도 온 마리'라고 했으니 각편마다의 차별성이 있는 셈이다.

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본풀이의 온전한 성격에 대한 논란이 분명하게 해명되지 않는다. 이 본풀이는 영웅의 일생이라는 서사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처음의 견해였다.<sup>10)</sup> 이 견해는 매우 유용하고 제 주도의 본풀이가 가지는 성격을 말하는데 일정한 시각을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했다. 세계의 영웅신화나 한국의 여러 서사체에 서 나타나는 유형적인 일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점은 이 자료 이해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영웅의 일생이라는 유형적 일치점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영웅의 면모만이 전부이며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이면적인 의문을 자아낸다.

이 본풀이의 주인공들이 겪는 갈등을 가지고 이를 식성갈등의 문화적인 단계로 보고자 하는 견해가 제안되었다.<sup>11)</sup> 식성갈등이 주된 당시 본풀이의 주제라는 점에서 이견의 여지가 없어 보이나 식성갈등의 이면에 이 갈등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 견해가 보편화되어 있으면서 이 견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데 있어서 의문의 여지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한다. 과연 식성갈등의의 다른 갈등은 없는지 식성갈등을 일으키는 차원이 퀘네깃도와 그의 부모대에는 차원이 다르게 구현되는데 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많은 의문이 있다.

<퀘네깃당본풀이>의 시대적인 성격에 대한 논의는 고대 남성영웅서사시라는 점이 한 차례 다루어졌다.<sup>12)</sup> 시대적인 성격에서 영웅이라는 점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면서 남성영웅서사시라는 점이 길게 논증되면

10) 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 《동아문화》 제10집, 서울대학교 동아문예연구소, 1970.

11) 현용준, 《제주무속연구》, 집문당, 1986.

권태효, <건국신화와 당신신화의 상관성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12)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 지성사, 1997.

서 이에 관한 의견이 명백하게 제안되었다. 그러나 자체의 성격은 영웅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영웅이 아닌 신으로 좌정되는 성격이 있고, 나아가서 평범한 인물로서 음식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인물로 드러나는 점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 측면에서 영웅의 성격을 일부 갖추고 있으나 그것만이 절대적인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많이 남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앞선 연구자들이 미처 논의하지 않은 문제점 역시 적지 않다. 과연 <퀘네깃당본풀이>가 어떠한 의의가 있는지 이 본풀이를 의례인 돛제(현지에서는 이를 도새기식계라고 하는데 의의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에서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으며 이를 돛제의 본풀이와는 어떻게 관련지어 논의할 것인지 체계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연구를 온전하게 하려면 이에 관련한 문제의식의 집약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에 관한 착상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편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퀘네깃당본풀이>는 편중된 견해로 말미암아서 전체의 실상이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일단 중요한 것은 자료의 실상과 구체적인 구연본을 대상으로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풀이의 기본적인 관심사안은 역시 이 본풀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하는 점이 중요하다. 연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의 실상을 면밀하게 보면서 선행연구자들이 접근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면서 전체를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퀘네깃도라는 본풀이의 인물 성격이 다면적이고 복합적이다. 다면적이고 복합적이라고 하는 말은 인물의 성격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이고 여러 인물의 성격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주된 성격을 파악하기로 한다. <퀘네깃당본풀

이>는 케네깃도가 주인공이고 이 주인공은 김녕리 일대에 와서 일정한 단골을 구실삼아 신으로 좌정한 것이 핵심적인 면모이다. 결과적으로 김녕리의 케네깃굴에서 좌정한 신임이 분명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인물은 신인 또는 신령으로 중요한 구실을 한다.

마을의 수호신령이므로 마을의 안녕을 담보로 해서 이들의 마을사람에게 숭앙되는 점이 핵심이다. 마을의 농사일과 관련이 있고 이 능력을 다른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요왕황제국에서 케네깃도의 장인을 통해서 얻은 부술 때문이고, 이 부술은 결국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게 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자신의 능력과 관련이 있지만 용왕황제국의 능력과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다. 주술적인 능력이 중요하고 주술적인 능력은 특히 농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동시에 케네깃도는 영웅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능력을 대체로 유형적인 것과 실제적인 능력으로부터 비롯된다. 유형적으로 주어진 과정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이고귀하고 탁월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고 다른 고장으로 버려져 나간 것이 요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능력의 이면에 배우자를 만나고 자신의 원조자에게서 필요한 힘을 얻어서 적대자를 물리치고 되돌아와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지도자로 자리잡는 것이 이 대목에서 발견된다.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유형적인 능력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케네깃도는 실제적으로 적대자를 물리치는 영웅이기도 하다. 머리가 열둘 달린 괴물을 퇴치하고 이를 물리치면서 세번난을 막았다고 하는 것이 영웅적인 능력의 이면적인 면모라고 할 수 있다. 세번난을 물리치고 이 과정에서 적대자를 물리치고 집단의 수호자 노릇을 하는 것은 실제적인 영웅의 능력이라고 보인다. 이 두 가지 면모 때문에 케네깃도는 영웅적인 인물로 판단할 수 있다. 유형적인 영웅의 면모가 큰 개념이라

고 한다면, 실제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영웅 대접을 받는 것은 과연 중요한 능력 발휘라고 할 수 있다.

퀘네깃도는 신과 영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범인의 면모 역시 묵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등장인물 가운데 아버지인 소로스천국에게서도 발견되는 것인데 이는 심각한 것이다. 곧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면서도 동질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식성이다. 관용적으로 국도 장군이고 밭도 장군이고 고기도 장군 술도 장군이라고 하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범인의 요건은 여러 가지지만 현실적인 가난이나 상황을 반영하는 면이 매우 심각하게 반영되어 있는 점이 그러한 면모를 과시한다. 평범한 인물이 지니고 있는 여러 면모는 다각도로 작동하는데 이것이 진정한 것으로 이해되고 단골들의 현실적인 여건이 반영되면서 이러한 변모가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난이나 양반을 거론하는 자체가 현실적인 변모를 말하는 증거이다.

많이 먹는 것이 이전에는 신성성을 담보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배고픈 신의 과식 요구 정도로 특성으로 전환되었다. 결국 식성갈등으로 이 본풀이를 풀이하면 미식성과 육식성의 갈등이라고 하는데 이는 일면적인 의미만을 갖고 실제로 필요한 대식성의 요구가 어떠한 의의를 갖는지 말하지 않는 측면이 발생한다. 배고픈 신이 요구하는 것은 웬지 평범한 인간의 한계 정도로 보이지 않는지 의문이 생긴다. 따라서 이들 신격은 결국은 범인의 속성이 투영되어서 생긴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퀘네깃도가 범인임을 말하는 긴요한 것이 배우자와 만나는 애정이 중요하게 부각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종전에 상세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다른 본풀이에서 막내딸에게 반해서 혼인하는 이야기가 많지

않으므로 이에 관련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동해용왕황제국의 딸들과 만나는 것은 운명적인 것처럼 되어서 예정된 수순을 밟는 것 같지만 순전히 범인성을 반영하는 장치로 인식되는 것이 두드러진다. 만남 자체가 회화화되었는 것이 두드러진다.

퀘네깃도는 신인, 영웅, 범인 등의 성격을 다면적으로 복합한 것임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 이는 <퀘네깃당본풀이>가 단일한 시대에서 생성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본풀이 자체에 시대적인 단층이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음이 이 작품에서 확인된다. 이 문제를 온전하게 해명하기 위해서 다면적인 성격에 대한 정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를 역으로 말한다면 신인의 모습에서 범인의 모습으로 전환하는 면모가 있으나 본질적으로 신인에서 영웅과 범인으로 변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퀘네깃당본풀이>에서 중요한 것은 인물의 성격에만 있지 않다. 인물들의 행적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훨씬 긴요하다. 이 본풀이에서는 1대인 소로소천국과 백주또가 심각한 갈등을 가진다. 이 갈등을 식성갈등이라고 했는데 이 방향으로 일차적인 논의를 집약하는 것은 2대인 퀘네깃도의 갈등으로 나아가는데 유익하지 않다.

문제는 식성갈등이 아니고 백주또가 전파한 농사짓기의 전파이다. 자연의 상태에서 수렵하고 채취하던 것을 버리고 농사짓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전환이다. 이 전환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채취에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게 한 것이 문화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 방법에서 과연 이 본풀이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있다. 농사기술의 전파와 곡종의 전파가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가축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관한 총괄적인 과정이 소로소천국에게 집중되어 있다.

석연하게 되어 있지는 않으나 국과 밥을 먹는데 삼베증이 등장하는

것은 특별한 면모이다. 중은 미식을 하는 남성신일 가능성이 있고, 소로 소천국을 육식을 버리고 미식을 하려는 단계의 신임이 명확하게 되어 있다. 이 갈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누가 밥을 먼저 먹는가 하는 문제가 생겼다. 삼배중이 제반삼술을 먼저 먹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소를 잡아먹는 것으로 농사법과 가축기르기를 청산한다. 이 전환은 진보가 아니라 후퇴이다.

소로소천국이 농사짓기를 멈추고 기르던 가축을 가지고 농사를 짓던 방식을 청산하는 과정이 아주 흥미롭다. 황밭갈쇠는 농사를 짓기 위한 가축이고, 이 가축은 사람에게 의해서 길들여진 소이다. 용강기를 걸어서 농사일을 하다가 이를 하지 않고,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가축을 잡아먹는 것은 농사짓기를 거부하고 다시 자연의 상태로 회귀하는 중요한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농사짓기를 가르치고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백주또와의 관계가 달라진 것은 중대한 갈등이다.

백주또와 소로소천국의 결별은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이 사이에서 태어난 퀘퀘깃당은 미식과 육식을 겸하는 것이 문제이다. 용왕황제국에서 이르러서 음식을 둘다 먹는 것이 다소 이상한데 부모의 결합으로 이들에 관한 이해는 가능하다. 육식으로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농사를 보호하는 신이 된 것을 이러한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이상한 설정은 용왕황제국에서 얻은 것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활쏘기에 관한 도구를 얻은 것인데 이는 활쏘기의 기술까지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용왕황제국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였음을 말한다. 배우자는 물론하고 영웅이 적대자를 물리칠 때에 사용하는 특별한 도구인데 이 도구는 있지 않던 것을 얻는 것으로 중요한 구실을 한다고 하겠다.

용왕황제국에서 나와서 적대자를 물리치고 제주도로 돌아와서 마을

을 차지하고 이 마을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곧 고기이다. 이 고기를 받아서 먹는 대신에 농사를 비롯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인데 이는 상반된 것이다.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고 밥을 얻어먹는 신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밥과는 거리가 먼 돼지고기를 먹겠다고 해서 전혀 다른 음식을 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반성은 결국 둘을 모두 성취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곡식의 풍년과 고기를 받는 것은 결국 같은 하나로 귀일되는 것이다.

농사짓기와 돼지 바치기가 켈네깃도에게 관련되는 것은 아주 희한한 일이다. 이 일을 통해서 농사와 가축을 기르기, 활을 쏘면서 적대자를 물리치는 일이 근본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점이 발견된다. 켈네깃도는 이러한 각도에서 통합적인 영웅이고 신이면서 음식을 대접받고 욕망대로 먹을 수 있는 범인임이 드러난다. 사람들이 마을의 농사와 안녕을 기원하는 댓가로 음식을 바치게 되고 신으로 위하는 일은 중요한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문화적으로 본다면 단계적인 전이를 말하는 것이다. 원시시대의 육식이나 수렵채취에서 고대시대의 활쏘기나 벼농사, 그리고 가축 기르기 나아가서 돼지고기를 갈라먹는 일이 모두 문화적인 전파나 이동하고 관련이 있음을 말한다. 작품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시대적인 것과 관련시켜서 말한다면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문화는 전파와 이동에 의해서 이륙되는 것이 특징이다. 외지에서 온 인물에게 새로운 문화를 받고, 다시 외지로 나가서 새로운 문화의 요소를 받아서 오는 것은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 변화에서 요점적인 것은 이것이 남녀의 결합이나 특정인물의 주인공이 이동하면서 이루어진다.

인물의 성격과 갈등의 요인을 분석하고 주인공들이 문제삼는 과정을 보면 서로 일치하기도 하고 분열이 있는 대목도 있다. 신이면서 영웅이



라는 점에서는 원시시대와 고대시대의 문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범인은 중세시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문제를 찾아가면서 해결한다. 이는 새로운 시대의 문제를 상정한 결과이고 전혀 다른 시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주인공의 행위에서 문화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을 보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소용되는 생활 방식의 기술적인 성과를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각별한 면모이고 여기에서 이러한 시대를 간추려본다면 활쏘기, 배 짜기, 벼농사 기술, 가축 기르기, 고기 잡아서 갈라먹기 등이 그것이다. 이는 원시시대와 고대시대의 흔적을 말해주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기술적인 차원에서 특별한 면모가 있는 것이고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기 위한 의식의 전환이 있으며 그러한 시대의 수단으로 되어 있음이 문제로 등장한다.

인물의 성격은 변화하면서 다면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인 행위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쟁점이 되는 사안을 보면 모두 원시와 고대시대의 흔적을 가진 것으로 된다. 인물의 변화는 외면적인 측면에 있고 주로 정착생활과 신기술을 가진 문화적인 영웅이나 문화적인 우월성을 가진 인물이 나타나서 새로운 기술을 제공해서 삶을 혁신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위엄과 권능을 가지고 새로운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요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풀이가 장구하게 지속적으로 구전되면서 이러한 성격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대의 갈등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와는 다르게 1대에서 2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이 유형의 본풀이가 제주시에 서부터 출발하여 남군의 표선면에까지 이르면서 여러 단계의 유형적인 변이를 보여주고 성격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

다. 본풀이의 요긴한 면모를 주목하면서 이에 관한 입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견해가 필요하다.

해양문화와 산악문화, 토착문화와 외래문화 등이 입체적으로 맞물리면서 이에 관련한 의미를 가지고 의의를 가지도록 하는 것은 좀 더 규명해야 할 연구 과제이다. 연구를 온전하게 하면서 논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하다. 해양문화가 선진적으로 앞서가고 이것이 <퀘네깃당본풀이>에서 일정한 기능을 하는 것이 일반본풀이와 전형 다른 점이라고 하겠다.

#### IV. 신화와 의례의 보편적 의의 : 내적 관계와 외적 확대

우리는 뜻제와 본풀이의 관련성을 다시 평가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특수한 국면이 어떻게 보편성을 가지는지 다시금 생각해야 한다. 이를 연상할 수 있는 용어가 곧 신화와 의례의 관련이라는 말로 바꾸어볼 수 있다. 이는 해묵은 명제이다. 신화와 의례의 관련을 어떻게 말해왔는지 의문을 가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실상을 근본적으로 재론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본풀이는 신화이고, 뜻제는 의례이다. 본풀이는 말로 하는 신화이고, 뜻제는 행위로 하는 의례이다. 이러한 말은 이미 신화가 의례와 함께 구술적인 상관물이라고 말하는 것과 일정한 관련이 있다. 말로 하는 의례와 행위로 하는 신화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관련성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본풀이와 뜻제의 관련을 해명하는 적절한 말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상관성의 해명은 평면적이고 낡은 해법이다. 이 관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견해가 필요하다.

돛제는 전체이고, 본풀이는 부분이다. 이는 명확한 말이 된다. 돛제의 일환으로 본풀이를 풀어야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돛제는 위에서 살핀 것처럼 본풀이를 감싸안고 있는 큰 개념이다.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편이 적절한 해명방식이다. 단순히 게 들을 관련짓지 않고 전체와 부분의 관계로 보면 범박하게 구술적 상관물 oral correlative로 보는 것보다 그럴 듯한 이해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sup>13)</sup>

그런데 전체와 부분 가운데 진정한 의의와 비중을 어느 쪽이 지니고 있는지 생각을 가다듬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분이 전체에 복속되어 구성소로 작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본풀이가 과연 그러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 때문에 부분과 전체의 관련성을 다른 각도에서 해명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

전체는 외형적인 껍데기이고 부분이 전체를 장악하고 숨은 원리의 노릇을 하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것이 본풀이에 명시된 원리이고 이 본풀이에 의해서 전체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질적으로 부분이 전체를 담고 있으면서 전체를 움직이는 원리라고 하는 점이 부각된다. 돛제와 본풀이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

본풀이는 어떠한 특성이 있고, 돛제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생각을 해야만 이 문제에 대한 보편적인 가치를 찾아서 논의할 수 있다. 본풀이는 구연자가 달라지고 전승이나 연행의 기회가 달라져도 항구적으로 누적되고 전승의 보편성을 지향하는 창조성이 여기에 있다. 전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이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적인 완결성이 있다. 의례의 규범적인 측면을 완성적으로 제시하는 특징이 있다.

반면에 돛제는 집단적인 전승이기는 해도 개인적인 신앙이나 구체적

13) 제의학파의 전형적 견해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인 행위의 실체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는 개별화된 의례적인 실천을 요구한다. 본풀이가 가지는 항구적인 신화의 특성을 의례는 구체화하는 신앙적인 실천이라는 점에서 항상 신앙의 실현이라는 완성의 의미를 갖는다. 구체적인 신앙의 의례적 속성이 긴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점이 매우 주목되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뫋제는 집단적인 전승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고, 본풀이는 집단의 대표인 사제자에 의해서 전승되어 구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집단의 규범을 개인이 구현하는 것과 집단의 규범을 개인이 실천하는 것은 엄격한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집단과 개인은 상관성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를 달리 구현하는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과 집단은 일정한 관련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집단의 의례 규범을 구조적인 것으로 구성했으므로 그것은 본풀이의 항구적인 특성을 말한다.

이에 반해서 뫋제는 본풀이의 구조를 해체하고 이를 구체적인 신앙 의례로 실현하는 특징이 있으며 본풀이에서 이를 실행하는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sup>14)</sup> 본풀이의 집약적인 측면과 뫋제의 분산하는 측면이 깊은 관련이 있다. 본풀이의 법에 입각해서 뫋제의 실체를 운용한다. 본풀이는 구조적으로 적분을 하는 특성이 있다면, 뫋제는 구조의 전체를 해체하고 신앙인들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특성이 있다. 이것이 뫋제와 본풀이의 특징을 새롭게 하는 이해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본풀이는 모으고 뫋제는 이를 분산한다.

뫋제와 본풀이의 상관성이 있지만 제의학과적 견해와 전혀 다른 새로운 견해를 가지고 둘의 관계를 일반론적인 각도에서 해명하는 길이

14) Claude Lévi-Strauss, *The naked man*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0), pp. 671-678 이 글을 읽고 이 논의를 가져다가 새롭게 변형해서 제시했다.

열렸다. 본풀이의 일반론적인 논의가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종래의 견해와 다른 새로운 해석의 방식이 열렸다고 할 수 있다. 본풀이가 지니는 적분의 방식이 전체를 집약하는 구조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과 이를 미분해서 구체적인 부분으로 나누는 일은 해체의 실천은 구조의 분쇄·파편적 실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돛제와 본풀이가 서로 내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신화와 의례의 상관성으로 결합하면서도 이것이 집약과 해체에 있다는 사실은 새로운 진전이다. 부분이 부분으로 머무르지 않고 전체를 볼 수 있게 하는데 긴요한 기여를 한다. 전체 역시 부분의 집중적인 것을 받아서 이것을 해체하여 실행하는 점이 두드러진다. 둘은 함수관계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음이 확실하게 파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돛제와 본풀이는 서로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상호작용하면서 움직이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김녕리에서 얻은 돛제와 본풀이의 상관성이 외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외적으로 확장된 관계 속에서는 돛제를 행하는 전지역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돛제와 본풀이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타진되어야 할 것이다. 돛제를 받아먹는 당신의 복제주만이 아니라 다른 고장에서도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를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돛제를 하는 본향당본풀이를 주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제주도의 구좌읍 일대에서 하는 돛제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서 현재까지 논의되지 않은 것을 문제삼을 필요가 있다. 돛제를 하는 지역은 동북, 김녕, 월정, 행원, 한동, 평대, 세화, 상도, 하도, 종달리 등에서 했다. 돛제를 하는 것은 일문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당에서도 하는데도 있는데 모두 본풀이의 내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본풀이를 대응시켜서 다루어야 한다.

동북은 <동북본향본풀이>와 관련된다. 이 본풀이에서는 돛고기를 먹어야 하는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김녕은 <퀘네깃당본풀이>가 관련된다. 월정은 <월정본향본풀이>가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행원은 <남당본풀이>에서 이에 관련한 본풀이를 명시하고 있다. 한동은 <한동본향당본풀이>가 이를 명시하고 있다. 평대는 <평대본향본풀이>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세화리는 <세화본향본풀이:금상한집>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상도와 하도에서도 본풀이가 있었을 터인데 채록된 바 없다. 종달리는 미상이다.

본풀이는 대체로 식성이 문제되어서 신과 인간, 신과 신끼리 다툼이 벌어지는 일이 생긴다. 인간에게 신으로 대접을 원하는 신은 돛제를 요구하기도 하고, 신이 다툼을 벌여서 육고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정하지 않다. 남녀신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로 식성 갈등을 구체화한다.

<퀘네깃당본풀이>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식성 갈등이 생기고, 자식이 육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월정본향본풀이>에서는 여성신이 육식을 하고 남녀신 사이에 식성의 갈등이 생겨서 갈라진다. <세화리금상한집본풀이>에서는 금상한집과 백주또 사이에 식성갈등을 극복하고 마침내 결합하고 본풀이에 명시한다. <토산리웃당본풀이>에서는 남녀신의 갈등으로 이 문제가 예각화되어 있다.

이 본풀이에서는 육식을 하는 돛제를 시행하지만 저마다 다른 본풀이들이 공통의 생각을 드러내면서 문제가 드러나도록 구성하고 있다. 불규칙하게 보이지만 불규칙한 것은 아니고 이면에 근간의 공통점이 질서정연하게 드러나리라고 예상된다. 이것에 대한 일반화된 고찰이 요구된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온전한 연구가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이

이면에 외지에서 온 신격과 현지에서 머무는 신격 사이의 갈등이 있는 것이 주요한 대립의 인자가 되기 때문에 더욱 온전한 고찰이 요구된다.

돛제를 하는 이유가 본풀이에 명시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이를 모두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돛제는 본향당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돼지 고기를 먹는 일을 할 때에 하는 것이 소중한 전례이다. 돛제는 흔히 인식하기를 조상을 위시한 본향한집에게 돛고기를 먹기 위한 돛제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

돛제는 제주도 사람들이 잔치를 해먹는 날이면 의례 하는 제사이다. 본향당이나 당에서도 하고, 혼인, 소상, 대상 때에도 한다. 특별하게 고기를 먹을 때면 이러한 잔치 음식으로 돼지 고기를 먹기 때문에 돛제를 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돛제를 하는 이유가 고기를 먹고 이를 분육해서 나누자는 것인데 이는 전혀 온전한 논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돛제와 본풀이의 양상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도 돛제와 본풀이가 중심에 놓여 있으며 돼지고기를 분육하고 분식하는 것으로 의례의 중심을 가지는 것임은 부인할 길이 없을 것이다. 돛제와 본풀이가 내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고장의 돛제와 본풀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 확장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며 굳이 돛제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돼지고기를 먹는 방식을 신화적으로 규정한 사례나 의례적 장치를 마련한 곳은 제주도 전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본풀이의 상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역의 돛제를 주목하는 일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돛제를 하는 지역은 외견상 북제주군 구좌읍 일대로 한정된다.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논의의 단서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혼인권 즉 통혼권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혼인의 범위에 따라서 모계를 중심으로 하는 돛제의 확장은 필연적인 현상

이고, 이 현상에 의해서 돛제의 범위는 외연적으로 제주도 북제주 일대로 묶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명백한 사실은 돛제가 통혼권에 의해서 확장하거나 중복되어도 반드시 본풀이에 의해서 규정된 규범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돛제와 본풀이의 무한정한 확장이 실제로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돛제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이지만 문제는 돛제의 전승 지역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다시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돛제는 칼감제나 신명질을 하는 거무영청굿이 분포하는 지역과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다. 돼지를 잡는 인물과 관련되는 것이 그것인데 이들은 일종의 피질을 하는 인물들로 칼을 다룰 수 있는 인물이다. 본풀이에서는 이들을 문광록이니 최광록이니 언급하고 있는데 좀더 보편적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돼지의 생태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나아가서 고기의 분육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인물들에게 이러한 돛제는 더욱 각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다음으로 돛제는 특별하게 불미항과 관련이 있다. 불미항은 대장간이다. 대장간은 문화를 일구는 연장을 만드는 곳인데 왜 이러한 돛제와 관련이 있는지 많은 의문이 있다.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의 불미항이 있는데 이 곳에는 돛제가 전하지 않는다. 그런데 본풀이 내용에 입각해서 본다면 불미항의 내력은 전하지 않지만 이곳에도 비슷하게 돼지고기를 바치는 의례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서 문면을 증시하지 않을 수 없다.

불미마당이 가능한 곳에만 이 불미항이 가능했겠는데 놀랍게도 구좌읍 덕천리, 남제주군 한경면 약천리,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 등이 이에 관련된 지역이다.<sup>15)</sup> 점혹이 가능한 곳에서도 돼지고기를 바치는 의례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상징적으로 본풀이의 주인공이 흑독한 불질을

15) 《제주의 민속》II(생업기술·공예기술), 제주도, 1994, 558면.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본풀이의 인물이 이러한 경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금상한집이나 적대자인 김통정이 이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각별한 일이다. 특정 지역에 꽃이 있는 마을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증언이 있는데 이는 과연 적실한지 의문이 있다. 돛제와 본풀이가 살아있는 마을로 별방상곳을 사례로 들 수 있겠으나 과연 그런지 반성을 요한다.<sup>16)</sup>

## V. 마무리 : 논의의 요약과 미해결의 과제

이 글은 제주도의 김녕이에 전승되는 돛제의 실상을 현지조사에 입각해서 기술하고 이 본풀이 가운데 하나인 <궤넬깃당본풀이>의 가치를 소개하고자 마련되었다. 돛제는 관찰이 힘든 것이기는 하지만 본주 집에서 특별하게 마련하는 의례로 집안과 마을의 당신을 위해서 지내는 것임을 알 수 있는 사례이다. 돼지고기를 마련해서 바치는 것으로 이 고기를 분육하고 분식하는 절차를 마련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신에게 바치는 의례를 거행하는 절차임을 알 수 있다.

돛제는 돛고기를 바치는 구체적 의례를 핵심으로 하지만 이 절차가 수행되기 위해서 먼저 신을 청하는 일반적 절차 속에서 신을 청하는 것이 먼저 마련된다. 이는 다수의 신격을 가지는 무속의례의 일반적 절차와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미식과 육식이 한 자리에서 공유되면서도 청배의 단계가 나누어지는 것이 이 절차에서 마련된 특성이 아닌가 한다.

16) 2007년 2월 28일에 강정식동화과의 대화 속에서 이러한 말을 확인했는데 일관성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오창명, 《제주도 이름과 마을이름》, 제주대학교출판부, 1998. 이 책에서 제주의 숲이라는 마을 이름을 꽃이라고 쓴다고 실증하였다.

이 절차를 일반화해서 결국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신이 각기 청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육식으로 하는 뜻제가 각별한 것이기는 해도 포제, 다른 고장의 돼지고기를 바치는 절차와 관련지어 논의를 하니 보편적 의례임이 확인된다. 다만 분육과 분식의 방법을 본풀이로 갖추고 있는 것은 이 고장의 특징이고 의례와 관련된다.

<케네깃당본풀이>는 영웅서사시의 전형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이 본풀이에는 다양한 시대적 다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단 기간에 생성된 것은 아닌 점을 분명하게 하는 요인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어찌 보면 고대, 중세, 이행기 등의 시대적 다양성을 고루 갖추고 있으면서 부분적으로 다양한 변천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것은 <케네깃당본풀이>의 다양성을 말해주는 증거이다.

뜻제와 본풀이의 상관성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 일 수 있다. 내적인 차원에서 비교연구가 가능하다. 이는 신화와 의례의 차원으로 환원하고 이것이 지니는 연구사의 쟁점을 어떠한 각도에서 해석하고 기여할 수 있는지 타당성을 추론하는 것으로부터 이 문제를 해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핵심적인 부분을 요약하면 곧 뜻제는 본풀이에 집약된 절차를 행위, 음식, 절차 등으로 세분하는 것이라면, 본풀이는 뜻제의 요소를 총괄적으로 집약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 이는 뜻제와 본풀이의 관계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본풀이와 굿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단서라고 생각한다.

외적 확장은 뜻제가 시행되는 마을의 분포를 유념하면서 이것을 확장하는 일이 가능한데 이것이 뜻제의 분포와 특징으로 일반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 전역의 특징에 의해서 확대가 가능한데 이 형식의 이면에 통혼권, 불미항, 지역적 특수성이 있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차후에 관련을 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해결의 과제가 있기는 하지만 제주도에 전승되는 본풀이는 자료와 이론의 양면에서 우리에게 통찰을 주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주도에 전승되는 본풀이가 세계문학적 가치가 있다. 이 가치를 어떻게 찾을지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일단 구전서사시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서사시에는 기록서사시와 구전서사시가 있는데 제주도의 본풀이는 구전되는 서사시이다. 구전서사시의 세계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이 일단의 장애 요인이다. 왜냐하면 기록되는 서사시가 우세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편견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기록서사시 가운데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이 고대그리스의 서사시이다. 호머의 《일리아스 Illias》와 《오디세이아 Odysseia》가 선입견을 행사한다. 이 서사시는 구전되는 서사시이다가 정착되었으며, 영웅들의 위업을 강조하는 점에서 특별한 서사시이다. 이 서사시는 중간에서 시작하는 점에서도 각별한 서사시라고 할 수 있다. 웅변을 늘어놓고 말이 많은 것이 이 서사시의 특징이다.

구전서사시는 새로이 평가할 만하다. 우리나라는 서사시의 양이 아주 많은 곳이다. 우리나라 구전서사시가 많다고 하는 것은 세계에 널리 자랑할 만한 것인데 이에 관한 온당한 이해가 없어서 문제이다. 우리나라에 전승되는 서사시에 서사민요, 서사무가, 판소리 등이 있는데 이 서사시의 갈래가 매우 긴요하다. 서사민요는 여성서사시이자 농민의 서사시이고, 내용이 아주 짧게 전개되는 서사시이다. 그래서 단형서사시라고 이름할 만하다. 서사무가는 무당의 서사시이고, 무당의 곳에서 구연되는 서사시이다. 판소리는 광대가 전승하는 서사시이고, 창과 아니리를 섞어서 구송하는 것이 특징이다. 단형의 서사시가 아니고, 장형의 서사시임이 분명하다.

구전서사시는 기록서사시와 함께 널리 퍼져 있는 서사시가 되며, 이에 관련한 여러 가지 서사시를 찾아내서 알리면서 이 서사시의 세계적인 분포에 관한 서사시의 존재를 알리는 결정적인 구실을 한다. 기록서사시에서 세계적인 가치를 가진 것도 적지 않은데 이에 관련한 자료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가령 인도의 2대서사시라고 할 수 있는 《라마야나 Ramayana》와 《마하바라타 Mahabharatha》가 그것이다. 이 서사시를 잘 모르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세계서사시에서 구전서사시와 기록서사시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이 본풀이는 내용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서사시이다. 내용은 신으로 좌정하는 인물의 내력을 말하는 것인데 집단적으로 숭앙되는 근본적인 것이 이 본풀이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주인공이 태어나서 시련을 겪고 축출되었다고 하는 것이 일단의 의의를 가진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상자에 담겨 버려진 아이가 바다의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배우자를 얻고 이 아이가 결국 더 큰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적대자인 괴물을 물리치고 다시 제주도로 돌아와서 일정한 범위를 관장하는 마을의 수호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본풀이의 주인공은 주요한 일생을 구성하고 있다. 이를 여러 학자들이 영웅의 일생이라고 했는데 매우 적절한 말이 된다.

영웅서사시가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중요한 할 만한 견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영웅이 아주 별나고 신이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은 편견이다. 오히려 영웅이 식성에 문제가 있고 많이 먹고 강력한 힘을 얻어가는 과정이 이상하게 묘사되어 있다고 보아도 잘못이 아니다. 그리스 영웅이나 제주도 영웅이나 거의 동일한 양상과 면모를 가진 존재임이 확인된다. 색다른 능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집단의 안위를 물리치는 군사적인 영웅의 영웅이다.

아울러서 중요한 것이 곧 신화와 의례, 서사시와 의례 등이 긴밀하게 관련된다. 의례는 일종의 굿을 학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의례는 굿이다 굿은 돛제라고 되어 있으며, 돛제는 신성한 신에게 음식을 바치는 행사임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신의 이름 아래 모인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신을 기억하고 신에게 의례를 거행하는 것임이 확인된다. 굿을 하면서 신의 내력을 푸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것이 곧 본풀이다. 본풀이는 신의 내력을 심방이 노래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곧 신의 서사시이고 신의 이야기가 된다. 서사시와 신화가 같은 것임을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 요소이다.

다른 민족에서는 신화와 서사시가 따로이 존재하거나 어느 한 쪽이 소멸한 경우가 흔하다. 그런데 제주도나 우리나라의 무당굿에서는 이러한 신화 또는 서사시가 긴밀한 구실을 하면서 이 본풀이를 동일하게 전승하고 있는 점이 그대로 확인된다. 이 본풀이와 굿의 상관성을 제주도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 전역에 이르기까지 두루 탐구하는 것이 위대한 연구 분야로 될 수 있다. 신화와 서사시가 무속의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을 이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제주도의 본풀이가 제3세계문학 the third world literature 과 제4세계문학 the fourth world literature 으로서 중요한 전범이 되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핵심적인 사안은 역시 제주도의 본풀이가 가지는 세계적인 의의를 말한다. 그 가운데 요긴한 것은 구전서사시의 존재를 제4세계문학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중국 운남성의 소수민족이 전승하는 구전서사시나 일본 북해도의 아이누가 전승하고 있는 구전서사시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자료 가운데 제일 긴요한 것이 결국 우리의 자산을 알아서 이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1. 연구자료

<케네깃당본풀이>, 한국무속학회 동계발표회, 국립국악원, 2006년 12월 2일.

<돛제본풀이>, 서순실심방 자택, 1999년 9월 17일.

### 2. 연구논저

강정식,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권태효, <건국신화와 당신신화의 상관성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권태효, <건국신화와 당신신화의 상관성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김현선, 제주도 굿의 구조와 원리, <한국무속학> 제14집, 한국무속학회, 2006.

김현선·현용준·강정식, <제주도조상신본풀이연구>, 보고서, 2006.

김현선, <세화리당신본풀이>의 식성 갈등 구조- 이달춘 구연본을 중심으로 -, 2004, 미발표 원고

문무병,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오창명, <제주도 오름과 마을이름>, 제주대학교출판부, 1998.

<제주의 민속>Ⅱ(생업기술·공예기술), 제주도, 1994, 558면.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 지성사, 1997.

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 <동아문화> 제10집, 서울대학교 동아문 제연구소, 1970.

진성기, <남국의 무속>, 형설출판사, 1987, 9-16면.

현용준, <제주무속연구>, 집문당, 1986.

현용준, 케네깃당본풀이,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637면.

현용준, 당신신화,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162-171면.

현용준, 제물과 신들, <제주무속연구>, 집문당, 1986, 199-205면.

Claude Lévi-Strauss, *The naked man*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0)

Abstract

Moon Soon-shil's Visit Oral Narration Explaining of  
A Version of Tot(pig) Scape-pig Memorial Service

Kim Heon-seon\*

<Oral Epic story summary>

Once upon a time, there used to live Keumbaekjo in Utsondang, Mr. Semyungdo in Saetsongdang, and Mr. Sorosocheonkook in Maealsondang. Keumbaekjo and Sorosocheonkook had tied the nuptial knot, had 6 children and conceived 7th child. Keumbaekjo advised Socheonkok to do farming, and he went to Obaengyee Koolwat, to plow a field While Sorosocheonkook was cultivating land, servant Ms. Neutindeok Cheonghanim took lunch out.

At the right moment a monk, Sambae, who was passing by and pressed by hunger, asked Sorosocheonkook for some food, and he gave the monk his lunch. Though Sochenkook felt hungry, he, as an aristocrat, couldn't eat the food that the monk left, so he roasted the black cow which flowed the field. After that, on the way home he slaughtered and ate other person's cow which razed on the roadside.

Keumbaekjo complained about it and severed husband and wife. Sorosocheonkook, on the way to Alson dang, met Mr. Semyungdo and made his living by roe deer hunting. Mrs. Keumbaekjo gave birth to the 7th son. Being worried about her son's becoming a bastard, Keumbaekjo took him to Socheonkook. The child sitting on his

---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yonggi University

father's lap touched his father's beard and hit his body. Considering the son a undutiful son, the father summoned another son, Soicheol in East Sea. He asked Soicheol to put the son in an iron case and to set him afloat.

The iron case drifted about at the mercy of the waves, and was hung from a upper branch of a coral which beonged to Whang Jae-kook, the king of Yo country. The king, Whang Jae-kook, heard a strange sound which divided a flowing tide and an ebbing tide continuously. And he ordered his three daughters to search for the reasons. The two oldest of them said that there was nothing, and the youngest informed that an iron case was hung from a coral branch.

The king had his daughters lower the iron case. The first and the second daughters couldn't, the third daughter took it down by shaking the coral three times. The emperor gave them an order to open the case. The two oldest was unable to perform his order once more. But when the youngest touched a lock, it opened by itself.

A general came out of the case and lied to the king, Whang Jae-kook that his Abangkook is Sochenkook and his Eomeongkook is Mrs. Baekjoo and he paid a courtesy call the king on his way to suppress the revolt in Cheonja country, Kangnam. Whang Jae-kook wanted to make him his son-in-law. When the general entered the first daughter's room, he didn't even open his eyes and in the second daughter's room he did the same thing. At last he gave a broad smile in the youngest daughter's room. He became the king's youngest son-in-law. The general ignored meals completely and asserted that he ate meals, alcoholic beverage and mea like a general. Whang Jae-kook exerted himself to treat his son-in-law, the country's storehouse was being emptied. Finally, Whang Jae-kook told his daughter and her husband to leave his palace. The general demanded Whang Jae-kook for a bow made of 600,000kg of coral, and an arrow



made of 60,000kg of coral.

With the help of the bow and the arrow, the general defended the disaster brought out in Cheonja country, Kangnam. The emperor gave the general a piece of land and a scroll of sea. The emperor bad him enter Jeju island, find good land and collect a land use tax.

The general and his wife tied the boat up at Woomootgae, Jongdallee, went up Sanggody, Byulbang and gaze at Wootson dang to find out that his mother was fanning beans on the hill. Mr. Cheongha, Neutindeok told Mrs. Keumbaekjo that the crown prince whom she deserted in his age of three, came to attack his Abangkook and Eomeongkook, but she didn't take it seriously and scold severely instead. At that time the son came up Wootson dang, his mother was sitting with rubbing her eyes because she had a bean hull in her eye. When the son used a blue fan, the mother in amazement went up the ridge of Komoony, Wootson dang and seated herself, and the father came down Alson dang and seated himself.

While the crown prince was finding a good land, he arrived at Mangdong mountain in Kimnyung by chance. And the scenery of ripening grain was worth of seating himself. Since there were no offsprings to treat him day and night, he asked his wife's parents to raise a storm so that people couldn't harvest in Kimnyung villiage, Cheonghae. A grandmother, Mrs Hyun, found out that it was the general's creation. Only then they solicited the parents of the crown prince's wife, the king of Yo country, to stop the storm. The village people consulted the place where they set up an altar to offer their first crop of rice for the year. He seated himself on Koinoikee, and said that he would eat a farming bull.

They promised that they would breed their pig as large as the bull, and give it to him after they severed its guts. In old times, when a Tot memorial service was carried out, a grandfather called Mr. Moon, went

up Koinoikee and collected stones to make a place for the service, and broke branches from trees to arrange a Tang Toma with royal azalea sticks put into it. However when an emergency brought out on the 3rd April, 1948( in the year of Moojin), people couldn't come up the mountain, therefore they made it a rule to perform ancestral rites at house gate, Ilmoonjeon. When people treated this one family three years in a row, their descendants could lead peaceful lives so that they paid land use tax and water tax.

일문요약

文純實(ムン・スンシル) シンバン(神子)の口演 :

<ゴィノギット本解き>或は<ドッ<sup>さい</sup>祭本解き>

1999年9月17日、文純實 シンバンのお宅で。

ゴィノギ ソテンコク 大み神よ。今日はこの子孫達が黄の牡牛の十二血盤を取り入れて差し上げます。ハンジッ様 ナンサンコクに 本を解くと楽しんで頂きたいです。

昔々、上松堂は グンピャッゾ(婦神名)、中松堂は セミヨンド様、下松堂は ソロソテンコク様が住んでいました。

子供を生んだのが六兄弟で、七番目の子は身ごもっていました。グンピャッゾ様が、“仙官様よ、濟州山は 悪山ですから、オビャンイグルワツ(松堂里の地名)へ上がっていくと、稗も九石、粟も九石、良い畑があるから農事を作りなさい。”と言いました。

ソテンコク様は翌日の朝、蝦夷松の葉で作った犁を担いでオビャンイグルワツに上がりました。

稗も九石、粟も九石 撒いて、一仕事してあちらこちら畑を耕していました。その時 ヌウッドク ジョンハニン(下女)が昼御飯を作って筒に入れました。それを麻織りの袋に入れて担いで畑に上がってきました。

“仙官様、昼御飯でも召し上がってから畑を耕したらいかがですか。”と言ったら、“あの高い小山に置いて行け。”と言いました。ヌウッドク ジョンハニンは昼御飯を高い小山に置いて下がりしました。ところで サンベ坊さんが近付いて、“耕している仙官様、僕の空腹を逃ささせていただきます。”と頼みました。

“あの小山に上がってみると、筒のなかに ご飯があります。それでも食べて行きなさい。”

サンベ坊さんはそのご飯を全部食べて、そのまま行ってしまいました。ソテンコク様はしばらく畑を耕したら空腹になりました。そして小

山が上がって袋を解いて筒を開けました。ご飯を食べようとしたら、坊さんが食べていたものは食べないと言って、そのまま捨ておきました。その代わり 畑を耕していた黒い雌牛を屠りました。鷹の爪のような指爪で牛皮をがりがり剥いで、蔓の串に差し込んで 火にもう焼いたかとして一切れ、まだ焼いていないかとして一切れしながら 食い付いてしまいました。

一頭の牛を食い付いたから犁は自分の腹に付いて、畑のあちらこちらを耕していました。仕事を済まして牛皮は雨がっぱで背中中に担いで下がって行きました。

オルムセキ ジョルオルム(徳泉里の地名)の近くに付いたら、人の家に近付いて、草を食んでいる牛も引っ張って鷹の爪のような指爪で牛皮をがりがり剥いてしまいました。蔓の串に差し込んで 火にもう焼いたかとして一切れ、まだ焼いていないかとして一切れしながら 食い付いてしまいました。

そうやって牛皮の雨がっぱを 二枚 担いで家に帰ってくるのを妻が見て、大喧嘩をします。

“あの、旦那よ。私はもう旦那様との家持ちはできないんです。今日として地を割りましょう。水を割りましょう。”

ビヤッゾ様は子を身ごもっているままで所帯を割りました。ソテンコクは下松堂に下がっている途中、セミヨンド様とのろの狩りをして救命徒食をしました。

ビヤッゾ様は身ごもった子を生まれました。七番目の子も息子でした。あの息子が一歳になっては母親の胸を殴って、三歳になっては 干し並べていた洗濯物を散らしてしまいました。

この子は父のある子だが、無礼な子になろうと思いました。それで七尺の木綿織りの雑巾でおんぶして下松堂に下りました。ソテンコクの膝に座ると父の七石の三角髭に触ったら父の体がずきずきとなりました。父はこの子が不孝者になろうと思いました。それで父親は東海の鍛冶屋の子を呼んで、鉄石の函を作らせていました。その鉄石の函に息子を閉じ込めて錠でかけてしまいました。星よ、月よ、空よ、鉄石の函を海に浮

かべました。

満ち潮・引き潮にぶかぶかと浮いていた鉄石の函は龍王皇帝国の珊瑚珠の上枝に引っ掛けました。満ち潮・引き潮の水割る音がちりんちりんとなりました。ある日、龍王は三人の女子兄弟を呼びました。

“長女よ、出てみてご覧。何で水割る音がちりんちりんとするのか。”

長女が出てきては、

“父上よ、何もありません。”

“次女よ、出てみてご覧。”

次女も出てきては、

“父上よ、何もありません。”

“末っ子よ、出てみてご覧。”

末っ子が出てきては、

“父上よ、外の珊瑚珠の上枝に鉄石の函が引っ掛けてあって、満ち潮・引き潮でちりんちりんと言っています。”と言いました。

“長女よ、あれを下ろせ。”

“ちっとも動きません。”

“次女よ、あれを下ろせ。”

“ちっとも動きません。”

“末っ子よ、あれを下ろせ。”

末っ子はチマ・ジョゴリを着たまま出ていっては、珊瑚珠の上枝を上下に右手で三回振ったら、鉄石の函が自ずから落ちました。

この中に何が入っているかと長女と次女に開けろとしたら、二人は全然開けられませんかと言いました。末っ子は革靴を履いて錠に触ると自ずから函が開きました。その中に将帥が座っています。

“何処の将帥になるのか。”

“父親はソテンコクで、母親はジャッゾ様です。江南天子国に国亂が生じて世變の亂を塞ぐように行く途中、龍王皇帝国の王様にお礼しに寄りました。”

“うちにはちょうど婿がないから、婿入りはどうか。”

“そうします。”

長女の部屋に入ったが、目も開けない。次女の部屋に入っても目でも開けない。末っ子の部屋に入ったら三十八の歯を見せながらがらりと笑いしました。それで末っ子の婿になりました。

ヌウウッドク ジョンハニンがご馳走を並べたお膳を持ち上がって入っても目も開けないのだ。

“どうして婿というのが高い家柄の婿に迎えましたか。ご馳走を並べたお膳にも目を開けないです。”

としたら、

“馬鹿なこと言わないでください。僕は将帥になるから、ご飯も将軍、お酒も将軍、肉も将軍で食べます。”

“皇帝国の大国で小国の一人の将帥に食べさせないのか。”

ヌウウッドク ジョンハニンが 東倉庫、西倉庫、南倉庫の扉を開けて一日三回食べさせていたら、大国で小国の将帥を食べさせる糧食ががらりと空いていきます。その時 皇帝国の王様が末っ子を呼んで、言うのが、

“恨めしい末っ子よ、娘と言うのは人の家族だね。あなたで生じた心配よ、もう家を出て行け。”

“父母さまよ、千斤の珊瑚珠で 弓 一つ、百斤の珊瑚珠で 矢 一つ 作ってください。”

それを持って江南天子国に入っていくと九つの将帥の首を切って天子様に捧げて国の亂を防ぎました。天子様が一切れの地、一切れの水をくださって南方国の濟州島に行くとき良い地を探して地稅、國稅を受けて生きなさいと言いました。そうして牛島のジンシルカク(牛島の浦口名)に入ります。終達里のウムツケ(終達里の浦口名)に入ってきて船を縛っておきます。別方サンコッディ(旧左面 下道里の旧地名)に上がって上松堂を眺めると母親が高い小山の小さな丘に座って豆吹かしをしているのが見えます。ヌウウッドク ジョンハニンが、“お殿様、別方サンコッディを見なさい。三歳の時に死ぬと捨てた太子様が父親、母親を討ちに着ました。”と言いました。

“この尼っちょ、女が言うのは見た所に捨てて 聞いた言葉は聞いた所に捨てろ。”と悪たれ口を叩きます。別方サンコッディから上松堂に上がり

ます。ピカッとして母親は目に豆がらが差し込まれて目をこすって座っています。上がってきて、

“母親、どうして目をこすって座っていますか。”

“恨めしい子よ、豆を吹かしたら豆がらが目に差し込まれたのね。”

“母親、こうしなさい。”

青扇を持ち出してピカッと扇いだら母親の目から豆がらを取り外しておきました。母親は怖じけて上松堂ゴムニマルに上がって据えて、父親は下松堂に下がりました。

僕は良い地を探して行こうと漢拏靈洲山に上がってウォスンセン((濟州市 海安里の岳名)、ダンドルオルム、センノルオルム(朝天面 橋來里の岳名)に野原に下がって来て、金寧のジギョン小山に着きました。金寧のジギョン小山からマン小山に上がって眺めたら穀物は黄色に実っていた。この村は 地も俺の地、子孫も俺の子孫、水も俺の水である。マン小山で昼荷は冷たい露に降られて、夜には 黒い露に降られても どの子孫も甘酒一杯、お酒一杯 差し上げる子孫がいないのだ。竜王の父母さまに手紙を書きます。金寧村は 地も俺の地、子孫も俺の子孫、水も俺の水ので この金寧村だけ雨風を吹かせてくださいと頼んだら金寧村だけ雨風が吹いています。それで穀物を刈り入れる日がありませんでした。これからこう続いていくと村の大人達が集まって議論しました。その時 玄氏のお祖母さんが マン小山を見ると将帥がいると言いました。

“どちらから来た将帥になりますか。”

“僕は 父親はソテンコクで、母親はジャッゾ様である。金寧村は 地も俺の地、子孫も俺の子孫、水も俺の水ので この村を占めるために来たのだ。”

“そうしたら穀物を刈り入れる日でもお知らせしてください。竜王の父母さまに雨風を済ませるように頼んでください。”

それで雨風が済みました。

セギョン地に撒いた穀物を刈り入れたらもう九十月になりました。新米でお膳を設けて何処に据えるかを教えてくださいと言ったら、アンピーレ、ショッダルピーレ、インバルゲバツになりました。アンダンの下は犬の尿の臭いが振えていました。ゴィノギに上がって来てこうし

て据えるようになりました。何を召し上がりますか。

“僕は将帥になるから黄の牡牛を食べます。”

黄の牡牛を捧げるとそこで言う言葉が金持ちでは黄の牡牛を捧げてもいいが、貧乏な家の子孫はどう黄の牡牛を捧げますか。その時 誰かが 豚を飼って朝、昼、晩ごと 水や餌をやって黄の牡牛ほど大きくなったら腸を切って捧げるのはどうですかと尋ねました。それじゃそうしなさいと言いました。

昔はドッ祭さいをしようと文氏のおじいさんが上がって石を集めて祭場を作って、木を折って祭壇を整えてつつじを拾って串を差し込んで整えました。

昔は ゴィノギ でしましたが、オダイオルムが近くなってから血の臭いが振えて一門前に招きました。戊辰年四・三事件に起きて山に人が上がれませんでした。それで一門前に招くものになりました。

ハンジッ様、この子孫達がハンジッ様をご馳走にしてからもう三年になりました。ハンジッ様のお陰で平安で子供が元気でこうするから、今日 地税・水税を捧げます。儲けられている恩返しを捧げます。右頭も 百斤の肉、左頭も 百斤の肉、前足も百斤、後足も百斤、肋骨も百斤、右肝、左肝、腎臓、腸、太い排泄、細かい排泄、煮えた汁は粥を炊いて捧げます。一滴の水も落ちたのがなくてお膳を整えて捧げます。ハンジッ様、召し上がったらこの子孫達も食べさせられて死の文書に入ら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皮膚病にかからないように してください。 広いセギョン地の五穀が実ってください、良い職場に通っている子孫達は 職場が平安で、車を運転する子孫達は無事故にさせて頂きたいです。ハンジッ様は日本に行って生きるか、本土に行って生きるか、金寧の子孫なら誰でも優れてい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三年ごとこのお膳を捧げますので、今日このお膳を捧げるとこれから連三年を平安に暮すようにして下さると、また三年後にハンジッ様にご馳走します。



Key Words

Jejudo Gimnyeongni, Dotje, Version of Tot(pig) Scape-pig Memorial Service, Interaction between myth and rite, heroic epic

교신 : 김현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94-6번지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E-mail : kimheonseon@hanmail.net 전화 : 018-356-9108)

최종 투고일 : 2007. 6. 28.

최종 접수일 : 2007. 7. 30.